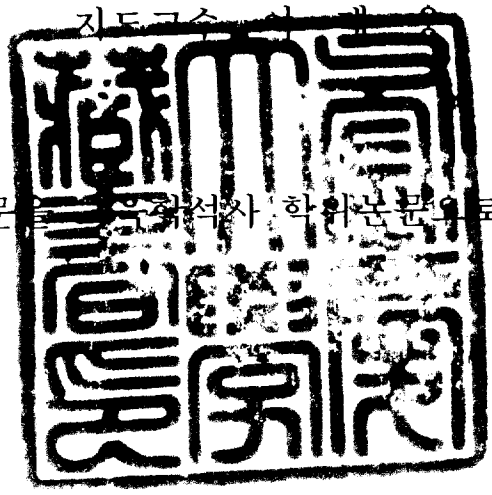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핸드볼의 도입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지도교수 [illegible]



이 논문을 [illegibl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오 세 훈

오세훈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31일

주 심 행정학박사 권 혁 동

위 원 체육학석사 이 태 웅 ㊞

위 원 이학 박사 지 삼 업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4

3. 연구의 범위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핸드볼 경기의 이해 ····· 5

2. 핸드볼 경기의 발생과 발전 ····· 8

Ⅲ. 한국 핸드볼의 도입과 발전 ····· 19

1. 해방 이전의 한국 핸드볼 ····· 19

2. 해방 이후의 한국 핸드볼 ····· 26

Ⅳ. 결론 및 제언 ····· 52

1. 결론 ····· 52

2. 제언 ····· 58

참고문헌 ····· 59

표목차

표 1. 초기의 국제 핸드볼 대회 기록 ····· 13

표 2. 역대 국제 핸드볼 대회 기록 ····· 18

표 3. 해외진출 선수단 ····· 48

표 4. 역대 핸드볼 협회장 ····· 49

A Historical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Handball

Sea-hoon, Oh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ccording to a historical record, games were played in the West and the East about 4,000 years ago. Handball originated in Denmark in 1898, and the introduction of handball rules by Fredrick Gunudsen in 1918 paved the way to develop into a 7-player system. In 1915, the game, which was named 'Torball' , started as a physical activity for women in Deutschland. In 1919, it was established as an 11-player system by Karl Schlentz and developed into an indoor game. For the 11-player system, ever since the 1950's, both the players and the audience have lost their interest in the game, because there were not many exciting plays in the game, which was one of the reasons for its decay. On the other hand, the 7-player-system handball has enjoyed great popularity in Northen Europe. Today, the 11-player-system handball is played in the few countries such as Switzerland, Germany, and Austria, and the 7-player-system handball is becoming the mainstream in the world.

Here, let us take a brief look at the history of Korean handball. In 1936, Han Byung Chul , a high school teacher, introduced the 11-player-system handball in the teaching materials for physical exercises or in the athletic meet. This can be considered as the beginning of handball in Korea. In 1939, Lee Byung Hak, a professor of Bosung Junior College, introduced the 7-player-system handball at its campus. In 1942, the first 11-player-system handball tournament was held at Seoul Stadium. In September, 1960, with the participation of Moon Byung Ju and Han Byung Chul in IHF Assembly held in Belgium, Korea was admitted to IHF, which provided a foundation for Korea handball to advance into the world stage. In 1963, there were the abolition of the 11-player-system and the spread of the 7-player system. Since ever, the Korea handball federation, which has had its leadership i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and industrial leagues, has been carrying on a small or large scale of projects home and abroad. In the

Los Angeles Olympics held in 1984, in which both the male team and the female team participated, the latter won the silver medal, which made the Korean handball world-wide known. In the 1988 Seoul Olympics, the male team won the silver medal and the female team won the gold medal. In the 1992 Barcelona Olympics, the female team won the first place for a second consecutive Olympics, which was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history of a game of ball and thus enhanced national glory and made its position in the world higher.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핸드볼은 덴마크(Denmark)의 오울돌프 실업 학교에서 1898년경부터 실시된 구기가 모체라 할 수 있으며, 덴마크의 홀가 닐슨(H. Nielsen)씨가 1906년에 핸드볼이란 이름을 붙이고, 규칙서를 발간하여 16인이 실외에서 실시하였으나, 점차 11인제로 접근하여 변화하였으며, 1918년 국립 체육 연구소의 프레드릭 구르드센에 의하여 실내 핸드볼 규칙이 발표되어 7인제 핸드볼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박응철, 1970: 65~68).

독일에서는 1915년경 토르 발(Tor Ball)이란 이름으로 성인 여자를 위한 체육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핸드볼 경기는 1915년 독일에서 강력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어머니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핸드볼을 만들어 여자 경기로 성행된 것이 최초라 할 것이다(조선일보, 2004. 3. 22).

핸드볼은 11인제 경기와 7인제 경기로 구분되며 11인제 핸드볼은 1972년 뮌헨올림픽을 기준으로 국내외의 공식대회가 모두 폐지되고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9인제 배구도 공식대회에서는 퇴출당한채 비공식 친목대회서 실시되는 생활체육의 단체구기로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7인제 핸드볼은 1918년 덴마크 국립체육연구소 연구관 프레데릭 누드센이 적설량이 많고 겨울이 길어 옥외경기의 시즌이 짧은 덴마크의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덴마크에서 성행하는 16인제 한드볼드를 겨울철의 실내경기에 알맞도록 소형화하여 경기규칙을 정리함으로써 태어났다. 11인제는 1

차 대전 직후인 1919년 베를린대학 체육교수 칼 슐렌츠가 1차 대전 중 여성 전용 스포츠로 보급된 토어발을 남성에게도 알맞은 남녀공용 스포츠로 전환시키기 위해 경기장 규칙을 확대하고 역동성을 추가하여 경기규칙을 개정한 뒤 11인제 핸드볼로 명칭마저 바꿈으로써 완성되었다(조춘제, 1983). 경기규칙 개정작업에서 슐렌츠는 축구를 참고대상으로 삼아 경기장 규칙을 축구와 비슷하게 조정했으며 경기 인원을 축구와 같은 11인으로 했다. 흔히 핸드볼은 축구와 농구의 혼합종목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옥외경기인 11인제는 농구보다는 축구에 더 가깝고 실내경기인 7인제는 축구보다는 농구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 1957년 IOC 총회에서 올림픽 헌장이 개정되면서 핸드볼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나 그 뒤 핸드볼은 올림픽 종목선정에서 빠지다가 1972년 뮌헨 올림픽경기에서 비로소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핸드볼은 독일과 매우 관련이 많은 종목으로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실시된 핸드볼은 11인제였으나 뮌헨 올림픽에 복귀한 핸드볼은 7인제였으며, 몬트리올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여자핸드볼도 7인제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핸드볼은 1970년대까지는 인기종목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비인기 군소 종목으로 홀대 받다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이후 올림픽에서 메달박스로 급부상하여 체육대국으로의 핵심종목으로 계속 공헌하였으며 특히 수훈의 주역이 여자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목과는 차별된다. 2005년 현재 초등학생 여자 팀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에 1~2개씩 모두 21개뿐이다. 여자중학교는 20개팀 249명이 전부이며, 여고부는 244명이 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며 여자 실업팀은 5개뿐이다. IMF 한파로 인하여 홍보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기업들은 잇달아 팀을 없앴으며 2003년 여자실업 명문인 광주시청과 알리안츠생명, 전국체전 우승팀인 제일화재가 사라졌으며 대학

마다 신입생 스카우트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메달박스로서의 핸드볼도 엘리트체육으로 인하여 선수층이 얇으며 빈약한 정부 지원으로 인하여 핸드볼이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대한핸드볼협회, 2003a). 한국에서 핸드볼경기가 대중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단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덴마크에서는 연중 9000회의 경기가 열리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핸드볼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선일보, 2004. 8. 30). 핸드볼 경기의 도입과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오도광(1999)의 「이야기한국체육사」에서 이야기 형식을 빌어 핸드볼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있다. 그 외의 선행연구들은 대한체육회(1984)의「과학적인 핸드볼」이나, 김동진(1989)의「핸드볼」그리고 오용기(2002)의「한국대표팀과 세계 상위 랭커의 핸드볼 경기분석에 관한 연구」, 유중호(1968)의「핸드볼 경기 규정상의 문제점 처리에 관한 고찰」등과 같이 대부분 핸드볼의 경기규칙이나 선수들의 지도방법 등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핸드볼 경기방식과 규정의 변화가 있었으나 올림픽 종목 중 메달박스인 핸드볼의 발전을 위하여 경기규칙과 인물 및 경기대회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핸드볼은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과 금메달 유망종목임을 인정하면서도 핸드볼에 관한 역사나 이론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핸드볼 경기의 역사적 배경 확립을 위하여 핸드볼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알아보고, 세계 핸드볼의 발전과정과 함께 우리나라 핸드볼 경기의 도입과정과 발전과정을 해방이전과 해방이후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해방이후 핸드볼에 대해서는 성장기와 발전기 및 전성기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각 시기별로 경기규칙과

핸드볼 발전에 공헌을 한 인물 및 경기대회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핸드볼경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핸드볼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핸드볼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핸드볼 협회 및 신문사의 통계 그리고 인터뷰 관련 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서 문헌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핸드볼 경기의 개념과 발생, 둘째, 핸드볼역사의 시대 순 정리, 셋째, 국내 핸드볼의 도입과 발전에 대해 고찰을 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일제 강점기인 해방이전과 해방이후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해방이후는 다시 성장기(1945~1959년), 발전기(1960년대~1970년대), 전성기(1980년대 이후)로 세분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핸드볼 경기의 이해

스포츠는 현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독특한 계획과 수행이 뛰어난 힘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협력과 노력에 기초를 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경기들과 접하게 된다. 스포츠는 관람자나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생활을 여유 있게 해 준다. 또한 스포츠는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에도 자극을 주며 서로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과 사회통합에 참다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 스포츠는 인간의 근력과 육체적인 힘을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전투의 기분을 맛보게도 해 준다. 그것은 또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최종석, 1971).

핸드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경기 중에서 가장 빠른 것 중의 하나이다. 핸드볼은 힘, 근력, 스피드, 기술의 우아함, 협동의 조화, 의지를 필요로 한다. 핸드볼 경기의 전신에 대한 필요는 달리기 위한 발, 다리, 방어를 위한 몸통,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던지기 위한 팔과 손, 생각하는 머리가 있으며, 또 핸드볼 경기는 인간의 모든 기관에 조화 있는 트레이닝 기회를 준다. 사실 핸드볼처럼 신체의 모든 내장기관과 심장, 허파를 발달하게 해주는 스포츠도 드물다. 핸드볼 경기의 기술은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과 트레이너에게 많은 문제를 접하게 해 준다. 핸드볼 경기는 경기를 통하여 경기의 본질인 끈질긴 투쟁을 경기자와 팀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에는 예리한 정확성, 완전한 균형, 근신경계의 절대적인 숙달이 필요하다.

볼게임은 많은 흥미가 따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예리한 주의력까지도

끌어들인다. 그래서 핸드볼의 역사도 전 세계 거의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실 전형적인 학교 스포츠로 출발한 핸드볼 경기는 조그마한 운동장과 매우 간단한 시설물만을 필요로 한다. 핸드볼은 활동적인 매우 우수한 경쟁경기로서 과거 옥외경기장에서 실내경기장으로 옮겨져 일년 내내 행하여 왔다. 이 명백한 사실은 일년 내내 활동적으로 핸드볼이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핸드볼이 옥외에선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실내경기장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핸드볼 경기의 전법 또한 매우 발달되었다. 단지 20m X 40m로 정한 경기장에 모두 12명의 경기자가 동시에 경기자의 경기 능력에 따라 그 팀의 최선의 작전을 세우고, 경기의 엄밀한 계획을 필요로 하며 엄밀한 훈련을 받은 경기자가 시합에 임하게 된다. 그 팀의 모든 경기자들은 가능한 한 기초체력이 요구되는 개인훈련과 하나의 단합된 힘으로서의 그 팀을 결속시키는 공동의 활동이 모두 필요하다. 경기자나 트레이너에게 가장 큰 시험과 도전이 될 것이다. 핸드볼경기의 운동목적은 상대방으로부터 득점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기 때문에 핸드볼은 전형적인 공격형 경기이다. 관중들은 득점이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핸드볼의 원리는 자기편의 완전한 방어를 위한 볼경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물론 강력한 방어는 핸드볼 경기 특징 중 하나일뿐만 아니라 강하고 신속한 공격을 위한 기본이 된다. 오늘날까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경기 가운데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도 핸드볼 경기일 것이다.

핸드볼 경기의 기본철학은 상대편 선수를 해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각 팀에게 주는데 있다. 그래서 어드밴테이지 규칙은 핸드볼 경기의 필수요건이다. 다른 한편 핸드볼 레프리들은 어느 다른 스포츠보다 투쟁하는 경기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신속하고 밀

접한 신체의 접촉, 몸으로 상대편을 막을 수 있는 경기자의 권리와 같은 경기의 특성들,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레프리들은 완강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써 한계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해야 한다. 특히 핸드볼이나 일반 스포츠의 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기지도자나 트레이너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자들에게 투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 핸드볼 경기규칙은 18가지 규칙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리의 정신에 충실하고 규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레프리들은 경기의 참된 이해, 다른 팀의 경기방법, 작전, 전문적 기술 모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지식의 바탕 위에 경기에 내포된 융통성 있는 리더쉽인 직관을 얻게 된다. 핸드볼경기에 참가하는 경기자, 트레이너, 지도자, 임원 및 관중 모두는 경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똑같이 책임져야 하며, 진정한 스포츠정신에 기초를 둔 상대편 선수의 인격 존중, 더 나아가서는 경기규칙, 경기의 특성과 원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현대 핸드볼경기를 스릴과 흥분의 경기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야 한다.

핸드볼은 모든 운동의 기본인 달리고, 높이 뛰고, 던지고 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기초적인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팀 동료 간의 협동심,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 규칙을 지키는 준법정신, 사회성 함양을 육성할 수 있고, 자아향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교육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목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볼을 던지고 받으며 드리블해서 상대방의 골대에 슛을 할 수 있게 하는 볼컨트롤(ball control)이 가장 기본이 된다. 볼은 스피드가 있고,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슛의 순간에는 더욱 스피드를 요한다. 또한 상대 선수보다 빨리 뛰고, 높이 뛰어오르고, 정확히 던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강한 스피드와 도약력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순발력은 물론, 민첩성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단체경기인 만큼 팀워크가 중요하다. 신체적인 접촉이 많은 경기로서 자기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용감성, 상황판단력도 중요하다(문교부, 1973).

2. 핸드볼 경기의 발생과 발전

1) 핸드볼 경기의 발생

볼 종류를 가지고 놀이를 한다든지,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은 동·서양에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집트(Egypt)의 왕묘(王墓)안의 벽화에 그려진 것을 들 수 있으며, 그 후로는 약 2,500년 전의 그리스(Greece)의 유명한 작품인 호머(Homer)의 서사시(敍事詩)중에도 볼을 던지고 받는 묘사(描寫)를 볼 수 있다. 또한 로마(Roma)시대의 시칠리아(Sicilia)섬 이궁(離宮)마루의 모자이크(mosaic)로 된 그림에 소녀의 볼 놀이라든지, 로마 시대의 문학작품 중에 볼을 가지고 놀이하는 많은 묘사를 볼 수 있다. 동양에서도 중국의 한(漢)나라 시대에 농환(弄丸)이라는 구기를 한 사적(史蹟)에서 볼 수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북부의 에스키모(Eskimo), 인디언(Indian)들 사이라든지, 중남미의 인디오(Indio)사이에도 볼을 던지고 차는 형의 경기를 많이 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황철문, 1992).

이와 같이 핸드볼과 같은 구기가 오래전부터 행하여져 왔으며, 역사적인 유희(遊戱)에 배경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19세기 유럽 각 국에는 여러 가지 형의 핸드볼의 원형(原形)으로 볼 수 있는 토어발이나 라프발과 같은 구

기가 있었다. 근대 핸드볼 경기의 체제와 골격을 갖춘 것은 20세기 초 덴마크와 독일에서 경기방법을 중심으로 핸드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한핸드볼협회, 2003b).

초기 16인제 핸드볼의 경기장 크기는 길이 50m, 너비 30m, 골은 높이 2m, 가로 3m, 골에어리어는 4~7m의 반타원형이고 선수는 FW 7명, HB 5명, FB 3명, GK 1명이었다. 1910년대에 이르러 덴마크서는 국내 핸드볼 대회에 관객이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루는 등 핸드볼의 붐이 폭발하였는데 이때 번창한 덴마크식 핸드볼은 경기장과 골의 규격, 경기 정원이 달랐기 때문에 정통적인 현대 핸드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1차 대전 이후 독일서 정착된 11인제로 통합되었다.

1918년에는 덴마크 국립체육연구소의 연구관인 프레데릭 누드센이 실내경기용 경기규칙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7인제 핸드볼의 시발이었다. 추운 겨울철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눈이 많은 덴마크는 옥외 경기를 벌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체육관시설이 갖춰진 수도인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실내핸드볼이 성행하였으며 같은 기후조건인 스칸디나비아반도서도 실내핸드볼이 번창하여 북유럽이 7인제 중심지역이 되었다.

1차 대전 중 후방에 남은 여성들을 위해 토어발의 보급에 진력한 주역은 베를린의 여성체육지도자 막스 헤이주어였다. 토어발이 보급되기 전 19세기 후반 독일의 각 고등학교에서는 라프발(Raffball)이라는 단체구기가 성행되었는데 '거친 볼'이라는 의미의 라프발은 영국서 발전한 럭비와 비슷한 경기로 남성전용의 구기였는데 헤이주어는 라프발의 거친 특성을 완화시켜 여성에게 알맞게 손질하여 토어발이란 이름으로 후방에 남아있는 독일여성들에게 보급시켰다. 헤이주어가 보급한 토어발은 경기장의 크기가 길이 50m, 너비 20m, 골의 높이 2.5m, 가로 2m, 골에어리어는 반경 4m의 반경이었으며

한 팀의 경기 정원은 골키퍼를 포함하여 9~14명이었고 볼은 축구볼을 그대로 사용했다.

여성전문 스포츠로 출발한 토어발은 1차 대전 종전 후 핸드볼로 명칭을 바꾸고 경기규칙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남녀공용 스포츠로 일대전환을 단행했다. 베를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가 토어발의 명칭을 핸드볼로 바꾸고 대폭적인 규칙개정안을 결정한 것은 1919년 10월 27일이었으며 이날은 사실상 핸드볼의 탄생일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전용의 토어발을 남녀공용의 핸드볼로 바꾸어 놓은 이때의 대폭적인 규칙개정은 혁명적인 개혁이었는데 이를 주도한 사람은 베를린대 체육교수인 칼 슐렌츠였다. 슐렌츠가 토어발로 되어 있는 경기 명칭을 핸드볼로 바꿀 때 그보다 앞서 닐슨이 사용한 한드볼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독일과 덴마크가 인접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최근과 같이 교류와 왕래가 많지 않았으므로 덴마크에서 기원된 한드볼드가 후에 독일에서 발전된 핸드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슐렌츠는 축구의 웅장한 스케일과 호쾌한 특성을 규칙개정안에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경기장의 크기를 길이 90m, 너비 60m로 축구장과 비슷하게 넓혔고 골은 높이 2.1m, 가로 5m로 키웠다. 또 골에어리어도 골로부터 8m거리의 반타원형으로 넓혔고 골라인서 16.5m거리에 오프사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경기 정원도 축구와 같게 했다. 토어발에서는 축구볼을 그대로 사용했으나 볼이 너무 커서 멀리 던지고 손으로 다루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사용구의 규격을 작게 고쳤다. 헤이주어는 럭비와 비슷한 라프발에서 남성적인 특성을 제거하고 여성에 알맞게 손질하여 토어발을 보급했는데 슐렌츠는 헤이주어가 없애버린 남성적인 특성을 복원시키고 현대 스포츠의 골격을 정비하여 핸드볼로 재탄생시켰다. 이때 독일에서도 축구가 크게 번창하여 슐렌츠가 규칙을 재

정비 할 때에는 축구에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전용 스포츠였던 토어발을 남녀공용 스포츠인 핸드볼로 대전환 시킨 슐렌츠의 의도는 1차 대전과 함께 전쟁에 동원되었던 남자들이 귀환하여 패전군인으로서의 허탈감과 실의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저하된 사기를 북돋우고 최저상태로 떨어진 독일의 사회분위기도 일신하자는 것이었다. 개정된 경기규칙에 의한 최초의 남자경기는 이듬해인 1920년 봄에 열렸다. 슐렌츠는 핸드볼을 그가 근무하는 베를린대의 체육교과 과정으로 채택하여 학생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다른 학교도 베를린대학을 뒤따라 핸드볼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핸드볼은 경기스포츠로 보급되기에 앞서 학교 스포츠로 먼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학교 스포츠로 자리잡은 핸드볼은 독일에서 급속하게 보급되자 독일육상경기연맹은 핸드볼위원회를 설치하여 핸드볼의 경기활동을 주도하도록 했으며 1920년에는 제 1회 독일핸드볼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경기 스포츠로 보급되기 전에 먼저 학교 스포츠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던가 독립된 단체구기이면서도 초기에는 독립된 협회를 구성하지 않고 육상경기연맹의 하부조직으로 출발하여 경기활동을 펼친 것은 핸드볼이 다른 단체구기와 다른 점이었다.

1921년 이후 독일서는 독일체육성, 독일체육회, 노조산하의 스포츠연맹 등 3개 단체에서 핸드볼경기 활동을 경쟁적으로 펼쳤으며 3단체는 저마다 약간씩 다른 경기규칙을 시행하였는데 해외전파를 위해 규칙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27년 체육성의 경기규칙을 기본으로 통일된 규칙을 제정했다.

독일에서 보급되어 성공을 거둔 핸드볼은 북유럽과 중부유럽의 인접한 국가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독일과 인접하여 거의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고안된 11인제 핸드볼을 발빠르게 도입하여 보급

시켰으며, 역시 독일 영향권의 체코에서는 핸드볼과 유사한 하세나가 이미 중세부터 성행되어 왔으나 현대 스포츠로서 체제와 골격을 갖춘 핸드볼이 전파되자 전통민속경기인 하세나는 핸드볼에 밀려 빛을 잃었다.

1925년에는 최초의 국제 핸드볼경기가 독일-오스트리아 간에 벌어졌다. 192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AAF(국제육상경기연맹)총회의 결의에 따라 IAAF에서는 핸드볼위원회가 신설되어 핸드볼의 국제교류와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IAAF가 핸드볼위원회를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것은 독일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IAAF 핸드볼위원회는 1928년 제 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을 계기로 IAHF(국제아마추어핸드볼협회)를 창설하여 IAAF에서 독립했다.

7인제 핸드볼의 경기장은 길이 30~50m, 가로 15~25m이고 골은 높이 2m, 가로 3m이고 골라인서 6m거리엔 반타원형의 골에어리어라인, 9m거리엔 역시 반타원형의 프리드로라인이 그어져 있고 사용구의 둘레는 60~64㎝이며 패널티드로는 골중앙으로부터 7m에서 던진다. 경기장 크기가 농구코트보다 약간 넓은 7인제 핸드볼은 농구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공간에서는 어디서건 경기할 수 있는데, 7인제 경기규칙이 처음 만들어진 1910년대 말은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한 덴마크에서도 요즈음처럼 실내체육관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7인제 규칙의 기초안 작성자인 누드센이 염두에 두었던 경기장은 학교강당, 어시장, 야채시장, 창고 등 지붕이 덮여져 있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오용기, 2002).

초창기 핸드볼 경기대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초기의 국제 핸드볼 대회 기록

연도	핸드볼 기록 내용
1898	덴마크 고등학교에서 핸드볼을 실시
1904	세계 최초의 핸드볼 경기(라틴-헤루싱가) 덴마크
1906	독일, 토르 발이란 이름으로 부녀자가 핸드볼을 실시
1917	7인제 핸드볼 규칙서 발행(프레드릭 구르드센) 덴마크
1919	독일 규칙서 체계화 (카알 세란츠)
1925	11인제 최초의 국제 경기(오스트리아 6 : 3 독일) 독일
1934	IAHF 11인제 및 7인제 규칙 제정
1934	덴마크 티임, 독일에서 7인제 시범 경기
1935	7인제의 최초 국제 경기(스웨덴 18 : 12 덴마크) 덴마크
1936	베를린 올림픽 정식 경기(11인제)1위 독일, 2위 오스트리아
1938	11인제와 7인제 남자 세계 선수권 대회(독일), 1위 독일, 2위 오스트리아

출처 : http://handball.sports. or.kr/handball/subIndex.jsp

2) 핸드볼경기의 발전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1936년 제 11회 올림픽을 베를린으로 유치하자 베를린 올림픽 개최를 위해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는 IOC와 협의하여 핸드볼을 베를린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포함시켰다. IAHF는 핸드볼이 베를린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자 베를린 올림픽에서 적용할 규칙을 1934년 제정하였는데 이때 제정된 IAHF 규칙이 최초의 핸드볼 국제규칙이다.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단체구기로서 핸드볼과 농구가 정식종목으로 추가되었다. 베를린 올림픽 전까지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실시된 단체구기는 하계대회에서는 축구, 필드하키, 수구, 럭비, 동계대회에서는 아이스하키 등이었으나

1924년 제 8회 파리 올림픽의 럭비 결승인 미국-프랑스전서 난투극이 벌어지자 국제럭비협회가 올림픽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하계올림픽의 단체구기 정식종목으로는 축구, 필드하키, 수구 등 3종목뿐이었는데 베를린 올림픽에서 농구와 핸드볼이 추가 된 것이다(이영태, 1986).

미국에서 기원된 농구와 독일에서 발달된 핸드볼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시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데에는 정치적인 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핸드볼은 베를린 올림픽 주최국인 독일에 대한 배려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당시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과 메달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미국에 대한 배려로 농구가 정식종목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남자의 올림픽 동기(同期) 종목인 농구와 핸드볼은 여자경기서도 몬트리올 올림픽서 동시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올림픽 동기 종목이 되었다. 단체구기로서 올림픽 동기 종목인 농구와 핸드볼의 올림픽 데뷔무대에서는 종주국이라고 할 미국과 독일이 무적의 기량을 과시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농구는 베를린 올림픽 이후 계속 정식종목으로 남아 있으면서 실내단체구기의 대표적인 위치를 확실하게 굳혔고 농구의 종주국인 미국은 뮌헨 올림픽에서 구소련에게 1점 차로 역전 분패할 때까지 올림픽무대에서 전승가도를 달리며 7연패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핸드볼은 베를린 올림픽 이후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제외되어 종주국 독일이 30여 년간 표류를 계속하다가 1972년 뮌헨 올림픽무대에서 복귀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핸드볼이 한 대회만을 치르고 탈락되어 36년간 소외되었던 것은 나치 독일이 적극 육성한 히틀러유겐트스포츠란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핸드볼이 독일에서 현대스포츠로서의 기틀을 잡았고 경기발전에 남달리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경기수준 면에서는 독일이 군계일학(群鷄一鶴)과도 같이 발군이었다. 베를린 올림픽 핸드볼경기에는 6개국이 출전하여 리

그전으로 패권을 겨뤘으나 5개 출전국은 도저히 독일의 적수가 되지 못했으며 독일은 미국을 29-1, 헝가리를 22-0으로 압도하는 등 5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준우승을 차지한 오스트리아만 독일과 비교적 선전했으나 스코어가 10-6으로 하프스코어를 간신히 모면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위세를 과시한 독일은 여세를 몰아 1938년에는 제 1회 세계핸드볼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11인제와 7인제를 모두 석권하며 기세를 올렸다. 또 베를린 올림픽 다음대회로 예정되었던 1940년 제 12회 도쿄 올림픽의 개최국이 나치 독일과는 동맹관계였던 군국주의 일본이었기 때문에 핸드볼의 실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도쿄 올림픽이 유산됨으로써 핸드볼은 올림픽에서 퇴출당하고 말았다(한국스포츠 정보, 2001).

핸드볼 경기의 발전에 공헌한 것은 올림픽 경기 뿐만 아니라 세계 핸드볼 대회도 핸드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세계핸드볼대회의 도입과 발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 대전 종전 후 최초로 열린 1948년 제 14회 런던 올림픽의 개최국이 국가의 존망을 걸고 나치 독일과 대살육전을 벌인 영국이었으므로 히틀러유겐트스포츠로 불린 핸드볼을 대회종목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2차 대전으로 두 차례의 올림픽이 무산되자 IOC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3국을 2차 대전의 도발자로 규정하고 런던 올림픽에서는 출전을 금했으며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의 로비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던 핸드볼도 덩달아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제외됐다. 2차 대전 종전 다음해이자 런던 올림픽 개최 2년 전인 1946년 7월 12일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폴란드 등 8개국 핸드볼협회 대표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여 나치 독일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IAHF(국제아마추어핸드볼연맹)의 해체를

결의하고 핸드볼의 새로운 국제기구로 IHF(국제핸드볼연맹)를 창설하고 스웨덴핸드볼협회회장인 게스타 비요르그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코펜하겐회의에서 1928년 창설되어 2차 대전 발발 이전까지 상당한 활동을 펼쳐 국제스포츠계에 이미 입지를 확보한 IAHF의 완전해체와 새로운 기구인 IHF의 창설이란 형식을 밟은 것은 핸드볼에 담겨 있는 나치 독일의 색채를 완전히 탈색하고 핸드볼 이미지를 일신하겠다는 의도였다. 새로 조직된 IHF는 2차 대전에 직접 참가하지 않아 전화를 피한 채 경기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스칸디나비아반도 등 북유럽국가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제 1회 대회만을 갖고 2차 대전으로 중단된 세계핸드볼 선수권대회의 부활을 첫 사업으로 정하고 1948년 프랑스에서 제 2회 세계남자 11인제 핸드볼 선수권대회를 개최했으며 1949년엔 헝가리에서 제 2회 세계여자 11인제 선수권대회를 열었다. IAHF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이때 열린 세계핸드볼 선수권대회는 1938년 나치 독일의 후원으로 IAHF가 창설한 세계선수권대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제 2회 세계선수권대회라 칭하였다. 남자대회는 핸드볼을 정식종목에서 제외한 런던 올림픽과 같은 해인 1948년 열려 올림픽 정식종목서 제외된 울분과 불만의 표시로 해석될 수도 있었는데 IHF 창립 2년만에 회원국이 4개국 늘어 12개국이 참가하여 스웨덴이 우승하였으며 여자대회에서는 4개국이 참가하여 주최국인 헝가리가 우승했다. 2차 대전 직후의 혼란기이기는 했지만 코펜하겐의 IHF 창립총회에 유럽지역 8개국만 참석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 2차대전 직후까지만 해도 핸드볼의 보급은 북부유럽과 중부유럽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국제라는 간판을 내건 IHF도 실제로는 유럽지역기구에 불과했으며 전후복구사업이 진척되어 안정을 유지하면서 회원국이 차츰 늘어났다. 북부유럽세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IHF는 독일에서 기원된 11인제보다는 덴마크에서 기원되어 북부유럽

서 발전된 7인제의 보급과 확산에 주력하여 7인제 규칙설명회, 국제심판강습, 코치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였으며 IHF의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인 추세를 타고 7인제가 11인제를 따돌리고 핸드볼의 판도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패전국 입장인 독일은 북부유럽세의 득세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1950년 IHF에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대세를 수용하였다. 7인제 보급에 주력한 IHF는 1954년 제 2회 세계남자 7인제 핸드볼 선수권대회를 개최했고 여자대회는 1967년 열었다. 7인제 세계선수권대회도 11인제와 마찬가지로 1938년 창설된 IAHF 주최대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열렸다. 1954년 부활된 남자대회에는 6개국, 1957년 부활된 여자대회에는 9개국이 참가했다(오도광, 1999).

세계선수권대회 부활 이후 핸드볼은 유럽이라는 지역한계성을 극복하고 타 대륙으로 영역을 확대했으며 서독이 베를린 올림픽 이후 36년 만에 1972년 제 20회 뮌헨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복귀하여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잡았다.

역대 핸드볼 대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handball.sports.or.kr / handball/subIndex.jsp).

표 3. 국제 핸드볼 대회 기록

연도	핸드볼 기록 내용
1946	IHF 창립(IAHF 해체), IHF 규정, 경기 규칙 제정(스톡홀름)
1948	제 2회 남자 선수권 대회(프랑스), 1위 스웨덴, 2위 스위스
1950	집행부 개편 IHF 사무소(바젤)
1952	제 3회 남자 세계 선수권 대회(스위스), 1위 서독, 2위 스웨덴
1954	제 2회 남자 7인제 선수권 대회(스웨덴), 1위 스웨덴, 2위 서독
1955	제 4회 남자 11인제 선수권 대회(서독), 1위 스웨덴, 2위 스위스
1956	제 1회 여자 11인제 선수권 대회(서독), 1위 체코, 2위 스웨덴
1957	제 1회 여자 7인제 선수권 대회(유고), 1위 체코, 2위 헝가리
1958	제 3회 남자 7인제 선수권 대회(동독), 1위 스웨덴, 2위 체코
1959	제 5회 남자 11인제 선수권 대회(오스트리아), 1위 독일, 2위 루마니아
1960	제 2회 여자 11인제 선수권 대회(네덜란드), 1위 루마니아, 2위 덴마크
1961	제 4회 남자 7인제 선수권 대회(서독), 1위 루마니아, 2위 체코
1962	제 2회 여자 7인제 선수권 대회(루마니아), 1위 루마니아, 2위 덴마크
1963	제 6회 남자 11인제 선수권 대회(스위스), 1위 동독, 2위 서독
1964	제 5회 남자 7인제 선수권 대회(체코), 1위 루마니아, 2위 스웨덴
1965	제 3회 여자 7인제 선수권 대회(서독), 1위 헝가리, 2위 유고
1966	제 7회 남자 11인제 선수권 대회(오스트리아), 1위 서독, 2위 동독
1967	제 6회 남자 7인제 선수권 대회(체코), 1위 체코, 2위 덴마크
1970	제 7회 남자 7인제 선수권 대회겸 뮌헨 올림픽 예선(프랑스), 1위 루마니아, 2위 동독
1971	제 4회 여자 7인제 선수권 대회(네덜란드), 1위 동독, 2위 유고
1972	제19회 뮌헨 올림픽 대회(7인제 : 서독), 1위 유고, 2위 체코
1973	제 4회 여자 7인제 선수권 대회(유고), 1위 유고, 2위 루마니아
1974	제 8회 남자 7인제 선수권 대회(동독), 1위 루마니아, 2위 동독
1975	제 6회 여자 7인제 선수권 대회
1976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캐나다) 남자 1위 소련, 2위 루마니아, 여자 1위 소련, 2위 동독
1978	제 7회 여자 7인제 선수권 대회(체코 : 한국 참가), 1위 동독, 2위 소련
1980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 남자 1위 동독, 2위 소련 여자 1위 소련, 2위 유고
1984	제23회 LA올림픽대회 남자 1위 유고, 2위 서독 여자 1위 유고 , 2위 한국
198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남자 1위 소련, 2위 한국 여자 1위 한국, 2위 노르웨이
1992	제25회 바로셀로나올림픽대회 남자 1위 독립국가, 2위 스웨덴 여자 1위 한국, 2위 노르웨이
1996	제26회 아틀란타올림픽대회 여자 1위 덴마크, 2위 한국
2000	제27회 시드니올림픽대회 남자 1위 러시아, 2위 스웨덴 여자 1위 덴마크, 2위 헝가리
2004	제28회 아테네올림픽대회 남자 1위 크로아티아, 2위 독일 여자 1위 덴마크, 2위 한국

출처 : http://handball.sports. or.kr/handball/subIndex.jsp

Ⅲ. 한국 핸드볼 경기의 도입과 발전

1. 해방 이전의 한국 핸드볼

1) 경기 규칙

핸드볼은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0년대 후반 일본을 거쳐 이른바 도쿄 유학생들에 의해 한반도에 도입되었다.

서양의 현대 스포츠는 조선의 개화 여명기인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 서양 선교사와 도쿄 유학생에 의해 한국에 도입되었는데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도입된 스포츠는 서양 선교사가 선교수단의 하나로 스포츠를 소개하고 보급에 힘썼고, 1910년대 이후에 도입된 스포츠는 도쿄 유학생이 일본에서 배워 국내에 소개하였다.

서양 선교사에 의해 소개된 스포츠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수입되었으나 도쿄 유학생에 의해 도입된 스포츠는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왔다.

서양의 현대 스포츠가 서양문물과 함께 한반도에 소개될 무렵의 핸드볼은 본고장인 서양에서도 태동단계에 있었을 뿐 스포츠종목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이었다. 서양에서도 후발 스포츠인 핸드볼은 한국에의 도입도 그만큼 늦었다. 타종목에 비해 늦게 도입된 핸드볼은 본격적인 경기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곧바로 전 세계적으로 휴면상태에 들어갔으며, 한국에서는 광복 후에야 재출발하였으나 재출발한 지 수년만에 또다시 한국전란을 맞아 뿌리를 내리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도입 초기 핸드볼은 송구(送球)로 불렸다. 서양 스포츠가 도입될 당시에 경기 명칭이 한자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한자문화권인 한국, 일본, 중국은 서양 스포츠의 명칭을 한자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경기 명칭의 번역은 서로 차이가 난다. 일본을 통해 대부분의 서양 스포츠를 도입한 한국은 경기 명칭의 번역에서도 일본의 번역을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 일본에서는 경기 명칭의 번역에서 직역보다는 의역을 시도했으며 번역이 까다로운 것은 서양의 명칭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강영석, 1983).

핸드볼의 도입 초기 학교체조 교수요목에 핸드볼을 편입하면서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수구로 번역하였으며 그 뒤 송구라는 새로운 번역용어가 등장하여 상당한 혼란을 일으킨 끝에 송구로 통일하더니 송구라는 용어를 버리고 2차 대전 후 핸드볼로 되돌아갔다. 한국도 1957년부터 공식명칭을 송구에서 핸드볼로 바꾸어 송구는 11인제 핸드볼과 마찬가지로 거의 소멸되었었다. 핸드볼은 송구라는 이름으로 일제말기인 1938년 일본체육전문(日本體育專門)출신의 체육교사 출신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핸드볼의 한반도 도입과정을 살펴보려면 먼저 핸드볼의 일본 도입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1919년 베를린대학 체육교수 슐렌츠에 의해 규칙이 제정되어 192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핸드볼은 1922년 동경고등사범(東京高等師範) 체육교수인 오다니에 의해 일본에 소개되었다. 당시 청년 체육교육자로 촉망받은 오다니는 일본유도의 메카인 강도관(講道館)의 설립자로 당시에는 동경고등사범의 교장인 가노의 지시로 해외유학 길에 올라 미국과 유럽 스포츠현황과 체육교육관계를 연구하고 돌아왔는데 독일서 새롭게 체계화된 핸드볼을 일본에 최초로 소개하고 핸드볼의 보급에 적극 나섰으며 문부성에 활발한 로비를 벌여 1926년 문부성 제정 학교체조 교수요목에 구기로서는 유일하게 핸드볼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핸드볼이 훨씬 먼저 경기화되어 보급된 축구, 농구, 야구 등 선발종목을 따돌리고 학교체조 교수요목에 포함됨으로써 학교 스포츠서 핸드볼의 위상을 확고부동하게 굳혔다. 체조 교수요목에 포함된 핸드볼은 각급 학교의 체조시간에 정식 교과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였다.

그러나 학교 스포츠서 위상을 굳힌 핸드볼의 경기화는 다소 늦어져 1930년대 전반까지 일본에서는 경기활동의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1940년 제 12회 도쿄올림픽이 확정되고 핸드볼의 정식종목 실시가 확정된 이후 경기력 향상책의 일환으로 각종 대회가 창설되고 일본송구협회도 창립되었다.

협회창립 이전에는 일본육상경기연맹이 핸드볼을 관할하여 IAHF에도 가입하였는데 이는 독일핸드볼협회와 IAHF가 걸어온 과정과도 일치한다(오도광, 1999).

2) 인물

일본최강인 일본체전 핸드볼팀에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가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하여 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핸드볼을 지도한 것이 핸드볼의 한반도 도입계기가 되었다. 일본육상경기연맹 내부기구였던 송구위원회는 1938년 2월 7일 일본송구협회로 독립했으며 이듬해인 1939년 6월 29일에는 이병학(李丙學), 조영하(趙瑛河) 등 일본체전 출신 체조교사들의 발기로 일본송구협회 조선지부가 설립되었다.

송구구락부 구성은 부장 김동형(혜화전문), 감독 이병학(보성전문), 주무 이규현(휘문중), 주장 조영하(보성중), 선수 이진형(대동상), 홍영희(휘문중), 원희득(연희전문), 유석홍(중앙중), 백용기(약학전문), 김광선(숭인상), 김세택(진명고녀), 최동순(양정중), 김종원(보성중)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 총독부

체육주사인 일본인 아베도 송구구락부에 참여했다.

일본송구협회 조선지부 설립을 주도한 이병학은 이에 앞서 1939년 4월 1일에는 그가 체육교수로 재직중인 보성전문(普成專門·현 고려대학 전신)에 송구부를 창설했는데 이병학이 창설한 보성전문 송구부는 국내최초의 송구부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때 설립된 일본송구협회 조선지부가 송구대회 개최 등 사업활동을 펼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보성전문 송구부의 대전기록은 팀 창설 3년 뒤인 1942년 제 18회 조선(朝鮮神宮)대회에 참가하여 일반부 1회전서 계명(鷄鳴)구락부에 2-1로 패한 것이 유일할 뿐이다. 1930년대에 국내서 송구대회가 열렸다거나 팀간의 대항전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단지 1938년 7월 일본 사학의 명문 라이벌인 와세다대학과 게이오대학 송구부가 와세다대 동문회의 초청으로 한반도를 방문하여 함흥(咸興), 원산(元山), 평양(平壤), 서울 등서 대전하고 시범경기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송구강습회를 연 것이 1930년대 한반도 내에서 있었던 송구활동으로 유일하게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나마 서울서는 늦장마로 인해 이들의 시범경기가 취소되고 송구강습회만 열렸는데 지방에서의 시범경기는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송구 보급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서는 일본체전 출신인 문현주(文顯柱)로서 해주동중 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남다른 힘을 기울였으며, 후에 경희대(慶熙大) 체육교수로 재직했고 광복 후 창립된 대한핸드볼협회를 IHF에 가입시키는 등 핸드볼 발전에 기여하였다.

광복전 일제치하에서도 한인 체육인들은 일본 체육단체에 예속되지 않고 조선체육회를 비롯하여 독자적인 경기단체를 구성하고 각종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주적인 스포츠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병학과 조영하가 주동이 되어 설립한 최초의 송구관계단체가 독자적인 간판을 내걸지 않고 일본송구협

회 조선지부란 간판을 내건 것은 처음부터 일본인들에게 지나치게 예속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병학과 조영하 등이 이 단체를 조직한 1939년 일본 지배자들이 조선체육회(현 大韓體育會 전신)를 비롯하여 한인의 모든 체육단체를 조선총독부령으로 강제 해산하고 전조선종합경기대회등 모든 경기대회를 일체 폐지한 뒤여서 독자적인 경기단체라는 인상을 풍기는 조선송구협회라는 간판은 내걸 수 없는 형편이었다.

기미(己未·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팽배해질 대로 팽배해진 한인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달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일시적인 유화책으로 내건 문화정책을 계기로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었다. 조선체육회는 현재 전국체육대회의 모체가 되는 전조선종합경기대회를 주최하는 등 일본인들에 예속되지 않고 한인들의 독자적인 스포츠활동을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가 조직되어 조선체육회 산하에서 활동하였는데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제패 이후 한인들의 독자적인 스포츠활동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일본인들은 1938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으로 조선체육회를 강제 해산하고 한인들이 독자적으로 주최하여 온 모든 경기대회를 폐지했다. 조선체육회가 강제 해산된 뒤에는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체육협회가 총독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스포츠 활동을 관할했고 명치신궁(明治神宮) 봉안대회의 예선대회 격인 조선신궁대회가 한반도 내 유일한 종합경기대회로 남았다. 조선체육회가 해산된 이듬해 단체조직을 시도한 송구에서는 독자적인 간판을 내걸 수 없어 일본송구협회 조선지부의 간판을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조직된 일본 송구협회 조선지부가 대회개최 등 활동을 펼친 기록이나 증언은 남아있지 않다.

이병학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지부는 송구의 보급을 위해 활동과 사업을 펼쳤으나 그 당시 송구가 미보급 경기였으므로 신문지상에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고 실무자들도 이에 대한 자료와 기록을 챙기지 않아 조선지부의 활동이 역사 속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조춘제, 1983).

3) 경기 대회

조선지부가 창설된 지 2년 뒤인 1941년 조선체육협회가 주최한 제 17회 조선신궁대회에 송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참가팀은 여중부 서울여상(女商), 배화고녀(培化高女), 남중부 해주동중(海洲東中), 보성중(普成中), 배재중(培材中) 등 5팀이었고 여중부에서는 서울여상, 남중부에서는 해주동중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듬해인 1942년 제 18회 조선신궁대회에는 여중부엔 서울여상, 숙명(淑明)고녀, 남중부엔 휘문중(徽文中), 보성중, 해주동중, 일반부에 계명, 해주, 보우구(普友倶), 보성전문 등 참가팀이 3개 부 9개 팀으로 늘어났고 휘문중, 서울여상, 해주가 각 부에서 우승했다.

1942년엔 명치신궁대회 송구경기 예선이 조선신궁대회와 별도로 열려 이 대회에는 일반부 출전없이 서울여상과 숙명고녀가 출전한 여중부에선 서울여상이 우승했고 양정중(養正中), 휘문중, 보성중, 배재중이 출전한 남중부에선 휘문중이 우승을 차지했다.

초기 송구팀은 남녀중등부의 학교팀으로 여중부엔 서울여상, 숙명, 배화 등 서울의 3팀이 활동 중이었고 남중부선 휘문, 보성, 배재, 양정 등 서울의 4팀과 해주동중이 있었다. 학교팀은 일본체전 출신 체조교사가 부임하여 학생들에게 송구를 열심히 지도하고 팀을 구성한 학교들이다. 중소도시에 지나지 않은데도 처음부터 출전하여 첫해엔 남중부서 해주동중이 우승하고 이듬해엔 일반부에서 해주팀이 우승하는 등 해주가 송구도시로 위력을 과시한 것은 일본체전 출신인 문현주(文顯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송구협회 조선지부장인 이병학이 재직 중이던 보성전문도 제 19회 조선신궁대회 일반부에 출전한 4팀 중 보성전문은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평소에도 방과후에 연습을 하며 호흡을 맞춘 팀이라고 하겠으나 나머지 3팀은 대회를 앞두고 급조된 팀이었으며 계명은 일본체전 출신 체조교사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일본체전을 졸업하고 돌아와 각향각지의 학교에서 재직 중이던 체조교사들은 1942년 9월 8일 휘문중학교 강당에 모여 송구구락부를 창설하고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신궁대회에 출전했던 것이다.

송구경기가 두 번째로 실시된 1942년 제 18회 조선신궁대회는 광복 전 마지막 송구대회가 되고 말았다. 2차 대전이 격화되자 일본은 징병제(徵兵制)와 징용제(徵用制)를 실시하여 한인 청장년을 전쟁에 강제 동원하면서 그때까지 어용체육단체로 총독부의 지시를 맹종하여온 조선체육협회와 그 산하 경기단체를 모두 강제 해산하였으며 스포츠활동도 전쟁수행 목표에 부합시킨다는 명분으로 전문학교 이상의 구기를 완전 폐지하고 총검술, 사격 등 국방경기와 육상, 수영 등 개인경기만을 허용키로 했으며 중학교의 구기대항전도 제한했다. 강제 해산된 조선체육협회 대신 관제단체인 조선체육진흥회가 조직 운영되었다. 구기의 폐지와 함께 1943년 열린 제 19회 조선신궁대회는 구기 없이 육상, 수영 등과 함께 기갑자동차훈련, 활공훈련, 마사훈련, 수류탄투척, 해양훈련과 같은 이상한 국방경기로 거행되었고 그나마 1944년엔 열리지도 못하더니 1945년 일본군국주의는 완전 패망하고 말았다. 조선체육회가 강제 해산된 이듬해에야 조직화되어 단체창립 2년만에 종합경기대회의 종목으로 편입되어 뿌리를 내리려던 송구는 광복까지 암흑 속에서 동면해야만 했다(오도광, 1999).

2. 해방 이후의 한국 핸드볼

1) 성장기(1945~1960년)

(1) 경기 규칙

2차 대전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전되자 광복과 함께 한인들의 묶여 있던 스포츠 활동이 완전히 풀려 체육인들은 광복의 감격 속에서 스포츠 활동의 복원과 재건에 나섰다.

1945년 8월 17일 체육인들은 재빨리 이상백을 중심으로 조선체육동지회를 조직하고 일제의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1938년 7월 4일 강제 해산된 조선체육회의 재건작업에 착수하면서 각 경기종목의 규칙을 재정비 하였다.

그 당시의 핸드볼경기 규칙을 보면,

· 경기규칙으로는 핸드볼 경기에서 공을 가지고 3발자국까지는 뛰거나 걸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반칙이다.

· 한 손으로 연속해서 드리블하는 것은 가능하나, 바닥에 튀긴 공을 두 손으로 잡은 다음 다시 드리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볼을 3초 동안 잡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반칙이다.

· 무릎 아래에 공이 닿아도 안 되며, 발로 차서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골키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골키퍼는 공을 잡기 위해 팔과 손을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상대편이 가진 볼을 건드려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때 주먹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골키퍼는 전신의 어느 부분으로도 방어할 수 있으나, 상대편을 붙잡거나 부딪히는 일은 반칙이다.

· 골키퍼는 골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제한 없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나 볼을 가진 채 골에어리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에어리어 밖에 있는 볼을 에어리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 골키퍼는 골에어리어 밖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으나, 그 경우는 필드플레이어와 같은 규칙을 적용된다.

· 공격선수들은 코트 위에 표시된 골에어리어 밖에서 슛을 하며, 골에어리어 안에서는 상대팀의 골키퍼만이 수비할 수 있으나, 필드플레이어가 볼을 던진 다음 선을 넘어 들어갔을 경우, 그것이 상대편의 이익과 관계가 없을 때는 허용된다.

· 팀 동료에게 패스하게 되는 프리 스로(free throw)는 가벼운 반칙을 범했을 때, 반칙을 한 지점이나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 밖에서 주어진다.

· 페널티 스로(penalty throw)는 심한 반칙을 한 경우에 골라인 밖의 패널티 지점에서 주어진다(김경용, 1986).

· 경기장의 길이는 30~50m, 폭 15~25m의 직사각형이다.

· 경기시간은 1947년 성인은 25분 하프, 소년은 20분 하프로 연장은 전후반 10분이었고 여자의 경우 15분 하프로 연장은 전후반 7분으로서 2003년 이후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행해졌다. 1958년에는 성인남자가 30분 하프, 고등학생의 경우 25분 하프, 여자와 소년이 20분 하프이었으며 연장도 전후반 5분으로 개정되었다.

· 선수의 경우 1947년에는 1팀이 10명으로 편성된 적도 있었다.(다카하시 다케오, 1982).

(2) 인물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핸드볼 재건의 계기가 마련이 되어 11월 22일에는 각 대학, 전문, 중등교사 40여명으로 구성된 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여 조선송구협회를 결성했는데 회장으로 이병학씨가 선임되었다.

조선체육동지회는 이상백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무위원에 장권, 이영민, 이종구, 권태하, 정상희, 정상윤, 임동수, 평의원에 김규면, 이길용, 조동식, 안동원, 이춘호, 이운용, 홍성하, 이세정, 조병학, 김동철, 서상국, 이병학, 서상천, 임병혁, 김기도, 이여성, 손효준, 김영구, 성의경, 상무간사에 염은현, 김관우, 간사에 김화집, 김은배, 조인상, 이윤용, 최해룡, 안중희, 안영식, 김영석, 신기원, 손기정, 사무국장에 최감, 총무부에 김용구, 장일강, 유해붕, 김재홍, 재무부에 박영진, 민용규, 손희준, 이상훈, 기획부에 안중희, 조인상, 김복경, 손광식, 서무부에 이순재, 권철섭, 이석한, 조동환, 연락부에 진번, 유장춘, 임창식, 이혜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월의 작업 끝에 11월 26일에는 일제하에 강제 해산된 조선체육회를 재건했으며 서울운동장서 자유해방경축 전국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1937년 제 16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전조선종합경기대회를 8년만에 복원했다.

재건된 조선체육회 회장에는 여운형이 추대되었고 부회장에 유억겸, 신국권, 이사장에 이병학, 상무이사에 이길용, 장일홍, 이종구, 이사에 김영구, 이상백, 조영하, 조병학, 김정학, 이영민, 이운용, 김은배 등이 선임되었다.

조선송구협회는 조선체육회가 재건되기 4일 전인 1945년 11월 22일 휘문중학교 강당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했다.

타 종목의 경기단체는 광복 전 한인들의 독자적인 경기단체로 창립되어 조선체육회의 산하경기단체로 활동하다가 1938년 조선체육회가 조선총독부령으로 강제 해산될 때 함께 해산되었기 때문에 광복 후 조직재건의 형식을 밟았으나 송구는 조선체육회 강제 해산 후인 1939년 일본송구협회 조선지부

로 출범하였다가 전쟁말기에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광복 후에는 조선송구협회를 새로 창립하는 형식을 밟았다.

조선송구협회 초대회장에는 이병학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엔 김동형, 이규헌, 이사장에 조영하, 이사에 조진구, 김문환, 안기수, 홍영희, 최인호, 한병철, 이병위, 엄점득이 선임되었다.

광복 전 일본송구협회 조선지부, 송구구락부 등을 조직하여 송구보급에 힘써온 일본체전출신 체조교사들이 광복 후에도 조선송구협회의 핵심으로 참여했다.

조선송구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이병학은 일본체전을 졸업하고 돌아와 한반도에 송구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광복 전에는 일본송구협회 조선지부와 송구구락부 등을 조직하여 송구보급에 진력한 공로자다.

고창농업(高敞農業)을 거쳐 1935년부터 보성전문 체육교수로 재임한 그는 일본체전출신 체조교사의 리더격으로 송구뿐만 아니라 역도, 체조 등 여러 경기종목에 폭넓게 관여했고 보성전문 운동부의 육성에 힘을 기울였는데 보성전문의 전통을 이어 받은 고려대학이 연세대학과 함께 한국스포츠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은 보성전문시절 이병학이 운동부의 기반을 탄탄하게 닦은 결과다.

광복 후 이병학은 복원된 스포츠계의 실력자로 부상하여 이상백과 경쟁관계를 이루며 좌우대립으로 혼란한 시기에 스포츠계를 주도했다.

이상백이 광복된 지 2일만에 조직된 체육인동우회의 위원장을 맡아 조선체육회 재건작업을 주도하자, 이병학은 재건된 조선체육회 이사장에 취임하여 체육계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런던 올림픽 출전 한국대표선수단 총감독을 맡았다.

일본 와세다대학 출신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이상백은 이미 광복

전 일본체육협회와 일본농구협회 이사, 1940년 제 12회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일본체육회에서 상당한 기반을 확보했고 국제스포츠계에 지면이 넓은 국제통이었으며 주변에 언제나 여러 유명인들을 모아 담소를 즐기는 귀공자풍의 인물이었다. 이에 비해 이병학은 일본체전을 졸업하고 돌아와 교직에 있으면서 각 경기종목에 폭넓게 관여하면서 특유의 달변과 친화력으로 두터운 인맥과 조직을 구축하여 이상백과 경쟁하였다.

송구협회 창립과 체육회 재건에 핵심역할을 담당했고 두 단체의 초창기 실무책임자로 활약한 이병학은 런던 올림픽 출전 대표선수단 임원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분규와 파쟁에 휘말려 런던 올림픽서 귀환한 후 체육회 이사장 겸 사무국장서 인책사임하여 체육회 실무주역서 물러나 송구, 역도, 체조 등 개별종목의 협회에 관여했으며 1·4후퇴 후인 피난수도 부산서 열린 1951년 체육대회 대의원총회서 체육회 이사로 복귀했으나 중요역할을 맡지는 못했다.

일제하 송구의 도입시기부터 이병학과 손을 잡고 일해온 조영하는 광복 후 송구협회 창립과 체육회 재건에 이병학과 함께 참여하여 송구협회이사장, 체육회이사, 상무이사, 사무국보건체육부장 등을 맡으면서 이병학과 동지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이들 외에 송구관계자로는 한병철, 엄점득 등이 이사, 대의원 등으로 체육회에 관여했다(오도광, 1999).

(3) 경기 대회

조선 송구 협회 회장 이병학은 1946년 5월 29일 협회의 첫 사업으로 제1

회 남녀 학생 선수권 대회 등을 개최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던 중 6.25 사변으로 그 활동이 침체되었다. 1948년에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뀜에 따라 「대한 송구 협회」가 되었다가 송구라는 용어가 핸드볼로 바뀌면서 1957년 2월「대한 핸드볼 협회」로 개칭하였다.

광복 3개월만에 조선송구협회가 발빠르게 창립되었지만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이르러서야 각급 학교의 송구대회가 처음 열렸다.

조선체육회 재건과 때맞춰 열린 자유해방기념 전국 종합경기대회에 송구는 포함되지 못했다.

자유해방기념대회 경기종목은 육상경기,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연식정구, 럭비, 자전거, 탁구, 승마 등 10개 종목으로 이미 광복 전 스포츠활동이 비교적 왕성했던 1930년대에 보급된 경기들이었다.

광복 전 마지막으로 열린 1937년 제 17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 종목은 육상경기, 수영, 축구, 농구, 배구, 복싱, 탁구, 씨름, 유도, 정구, 역도, 검도 등 12개 종목이었고 마지막 조선신궁대회인 1942년 제 18회 조선신궁대회 종목은 육상경기, 축구, 농구, 배구, 송구, 야구, 럭비, 복싱, 자전거, 연식정구, 검도, 유도 등 12개 종목이었다. 광복 전 마지막 열린 전조선종합경기대회와 조선신궁경기대회서 실시되지 않은 종목 중 자유해방기념대회서 실시된 종목은 승마뿐이었다.

2) 발전기(1960년대~1970년대)

(1) 경기 규칙

실내에서 행해지는 7인제와 달리 11인제는 실외에서 행해지며 필드 볼 또

는 필드 핸드볼이라고 부르며, 필드플레이어 11명(포워드 5명, 하프백 3명, 풀백 2명, 골키퍼 1명)과 교체선수 2명으로 구성된다. 시합시간, 공의 크기, 상대편에 대한 동작, 골키퍼의 규칙 등은 7인제와 거의 같으나 골에어리어 라인은 반지름이 12m로 7인제 보다 2배나 크다.

우리나라는 1960년까지 11인제만 실시되어 오다가 61년과 62년에는 7인제와 11인제(여자는 7인제)를 병행,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3년에 들어서 국제적인 상승 기류에 의하여 11인제를 폐지하고 7인제 경기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 해 6월과 11월에 대학 선발팀, 그리고 고교 선발팀이 일본에 첫 해외 원정을 하여 경기를 갖게 되었다.

1960년 9월 벨기에의 리해지에서 개최된 IHF총회에서 한병철, 문현주 교수에 의해 회원국으로 가맹하여 국제 진출의 길이 열렸으며, 1963년에는 11인제 경기를 폐지하고 7인제만을 보급키로 하여 오늘에 이르러 전국 초·중·고·대학 연맹을 거느려 국내외로 크고 작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송구협회 발족 이후 남녀중학(6년제)과 국민학교의 송구부가 급속하게 늘어갔다. 교사양성기관인 각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 송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국민학교 교사와 중학의 체조교사들은 학창시절 송구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현장서 학생들에게 송구를 가르치고 소질있는 학생들을 골라 손쉽게 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교사가 직접 지도했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이나 코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각 학교의 송구팀이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경기규칙은 성장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2) 인물

1960년 6월 23일 벨기에에서 개최된 IHF 총회에 문현주. 한병철 양씨가 참석해서 회원국으로 가맹하여 국제 진출의 길이 트였으며(북한 1974년 가입), 1961년 일본 체육 대학팀, 1962년 전 일본 고교 선발팀 등이 내한, 공식 국제 경기가 이루어졌다.

서울서는 이른바 5대 사립중 (배재, 양정, 휘문, 중앙, 보성)이 모두 송구팀을 갖고 있었으며 공립중의 명문 라이벌인 경기, 경복, 서울이 송구를 하였고 이들 외에도 경동, 성남, 서울공, 한양공, 선린상, 대동상, 경기공의 송구부도 활동하고 있었다.

여중부서도 경기, 이화, 숙명, 진명, 배화, 서울여상, 수도, 창덕, 상명의 송구부가 각종대회에 출전했고 대학에서는 고려대, 동국대에 이어 세브란스의대(연세대 의대 전신) 가 송구를 했으며 서울대에는 단과대학별로 공과대학, 문리과대학, 사범대학이 어깨를 겨루었다. 각급학교의 송구실력은 체육교사의 지도능력과 송구에 대한 열의로 좌우되었는데 일본체전 출신의 체조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대체로 송구가 강했다.

광복전엔 일본인학생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으로 있다가 광복과 함께 새 출발한 서울중이 광복직후 중학송구의 강호로 등장하여 대회 때마다 상위입상의 호성적을 남겼는데 서울중 송구부의 급부상은 일본체전출신의 조영식(趙永植)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송구부 육성에 진력한 결과였다.

조영식은 그후 신흥대학(新興大學)을 인수하여 현재의 경희대학으로 개편운영하면서도 송구부 육성에 힘을 기울여 경희대를 대학핸드볼의 명문강호로 키웠다. 경희대는 성균관대학(成均館大學)과 함께 수많은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하여 핸드볼계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데 경희핸드볼 육성의 공로자는 조영식이고, 성균관대 핸드볼 육성의 공로자는 당시 성균관대 교수로 재임하여 핸드볼협회 초창기 오랫동안 행정실무책임을 맡았던 한병철이

다.

송구 도입의 주역으로 송구협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한 이병학도 체조협회, 역도연맹 회장, 체육회 이사장 등을 겸임하였으며 초기 송구계의 2인자로 이병학을 지원했던 조영하도 송구와 수영 양쪽으로 뛰었다. 또 한국전란 이후 송구의 재건과 핸드볼로의 발전을 주도한 한병철은 일본체전시절에는 송구보다는 체조선수로 활약했으나 송구협회 창설에 참여하면서 체조보다는 송구에 주력하였다.

전란으로 조직이 와해된 대한송구협회는 1952년 피난수도 부산에서 재건총회를 열고, 조직을 재정비했는데 제 2대 회장엔 정치학자인 이선근(李瑄根)이 추대되었다.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교수출신으로 한국전란 당시에는 국방부 정훈국장을 지냈고 자유당 치하에서는 문교부장관, 유신시절에는 한국정신문화원장을 지낸 이선근이 송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요절한 아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피난수도 부산서 송구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선근은 4·19 학생의거로 자유당정권이 붕괴한 1960년까지 재임하여 역대회장 중 두 번째로 장수한 회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선근은 상징적인 회장으로 있었을 뿐 송구협회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재정적으로도 송구협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때에는 이사장인 한병철이 협회운영을 주도하였는데 한병철은 1958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했고 1958년부터는 실무부회장, 4·19 학생의거 후인 1960년부터 2년간은 회장, 그 이후는 다시 실무부회장으로 1960년대말까지 빈곤한 시절 송구협회를 이끌었다. 이 무렵 한병철을 도와 협회운영에 관여한 주역들은 홍순태, 문현주, 최동순(崔東淳), 최인근(崔仁根) 등 일본체전출신 체육교사들이었다.

일본체전을 마치고 돌아와 중등학교 체육교사로 출발한 이들은 1950년대 이후 각 대학에 체육과가 신설되면서 대학교수로 영전되어 송구협회를 이끌

었는데 한병철은 성균관대, 문현주와 최동순은 경희대 교수를 맡게 되어 이 두 대학의 핸드볼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축구와 럭비는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의 경기종목으로 실시되어 사관학교 스포츠를 상징하는 경기종목으로 자리잡았으나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송구가 육사의 교과목에 포함된 것이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송구의 육사 교과목 편입은 육사 교수부체육과장 홍순태(洪淳泰)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일본체전출신으로 강릉상(江陵商)과 동성중(東星中)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한 홍순태는 한국전란을 계기로 육군에 입대하여 장교로 근무 중이었으며 4년제 정규 육사가 진해에서 창설 될 때 육군대위로 육사 교수부체육과장을 맡고 있었다. 송구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던 홍순태는 축구, 럭비와 함께 송구를 교과목에 포함시키고 송구부까지 창설하였는데 이때는 일반대학이 전란에 쫓겨다니느라고 송구부 창설을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육사 송구부가 한국전란 후 창설된 최초의 대학팀이 되었다. 홍순태가 조직한 육사 송구부는 그가 육군소령으로 제대하여 한국외국어대 체육교수로 옮겨가면서 후원자를 잃고 1960년대말에는 해체되고 말았다. 정계로 진출한 11기 김복동(金復東)이 육사 송구부 초대 주장이었으며 12기 최낙철(崔洛喆), 이광근(李匡根), 13기 김종하(金宗河 · 핸드볼협회 명예회장), 14기 이춘구(李春九), 17기 임인조(林寅造 · 예비역 중장), 19기 김상준(金相駿 · 예비역 중장) 등이 부원으로 활약했다.

육사 초창기 축구, 럭비, 송구 등 각 운동부에는 후일 신군부 득세 이후 국정을 주도했던 인물이 적잖이 소속되었는데 신군부의 핵심주역으로 대통령에 오른 전두환(全斗煥)은 축구부 주장으로 GK를 보았으며 송구부엔 GK가 따로 있기는 했으나 송구부 GK 유고시에 대타 GK로 송구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전두환의 뒤를 이어 대권에 오른 노태우(盧泰愚)와 5공시절 합

참의장,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기백(李基百)은 럭비선수로 뛰었으며 럭비부 주장은 한국전란시 용장으로 이름을 떨친 김석원(金錫源)의 장남인 김영국(金永國)이었다. 홍순태가 창설한 육사 송구부서 선수로 뛰던 김종하는 후일 핸드볼협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은사인 홍순태와 손을 잡고 여자의 단체구기 최초 올림픽 금메달, 올림픽 2연패, 세계선수권대회 제패, 남자의 남자단체구기 최초 올림픽 은메달 등 핸드볼이 단체구기로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데에 기수역을 맡았으니 그의 육사 송구부 창설이 핸드볼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다.

육사 송구부가 창설된 지 얼마 뒤 경기고 송구부 주장 서입규(徐立圭)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공대 송구부가 부활되어 활동을 재개했다. 서울공대가 육사와 인접된 공릉동에 위치했으므로 양교 송구부는 육사 연병장서 자주 경기를 가지며 교류했는데 육사체육과장 홍순태, 육사 송구부 김종하, 서울공대 송구부 서입규의 인연은 태릉 연병장서 시작되어 핸드볼 중흥의 주역콤비로 열매 맺었다.

핸드볼협회 회장 영입에는 서입규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회장으로 영입된 김종하는 홍순태를 명예회장, 서입규를 실무부회장 겸 전무이사로 지명하여 3인 콤비의 역할분담으로 핸드볼 중흥에 공헌했다.

1960년 9월 23일 벨기에 리즈에서 열린 IHF총회에는 당시 회장인 한병철과 이사 문현주가 참석하여 가입수속을 마쳤는데 1960년까지만 해도 핸드볼은 유럽지역에만 편중적으로 보급되어 있었으며 한국은 이집트와 함께 26번째로 IHF에 가입했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3번째로 IHF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IHF 회원국은 1백38개국이며 26번째로 가입한 한국은 회원국 중에는 선임고참국에 속하는데 핸드볼이 유럽대륙에만 편중되어 있었던 탓으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양

의 선진국들도 한국보다 뒤늦게 IHF에 가입했다.

(3) 경기 대회

1960년 6월 23일 벨기에에서 개최된 IHF총회에 문현주·한병철 양씨가 참석해서 회원국으로 가맹하여 국제진출의 길이 트였으며(북한 1974년 가입), 1961년 일본체육 대학팀, 1962년전 일본 고교 선발팀 등이 내한, 공식 국제 경기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1960년까지 11인제만 실시되어 오다가 61년, 62년에는 7인제와 11인제(여자는 7인제)를 병행, 실시하였으나 1963년에 들어서 11인제를 폐지하고 7인제 경기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 해 6월과 11월에 대학 선발팀 그리고 고교 선발팀이 일본에 첫 해외 원정을 하여 경기를 가졌다.

송구협회 초대회장인 이병학이 재건된 체육회 이상장의 요직을 맡았는데도 전조선종합경기대회서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조선신궁대회서는 실시되었던 송구가 자유해방기념대회서 실시되지 않은 것은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서 3개월만에 각급학교의 송구팀이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광복 후 최초의 송구대회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 5월 29일 열린 제 1회 남녀중학 송구대회였다.

송구협회 발족 후 각급 학교 체육교사로 근무중인 일본체전출신들은 송구 보급과 함께 송구팀 창설에 힘을 기울여 휘문중 운동장서 열린 이 대회에 여중부 참가팀은 배화 A·B, 숙명, 풍문(豊文), 동덕(同德), 상명(詳明), 경기(京畿), 창덕(昌德), 서울여상, 무학(舞鶴) 등 10개 팀으로 확인되나 남중부는 1~2회전 기록이 없고 준결승 이후의 기록만 남아 있어 참가팀 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준결승을 치른 팀이 양정, 휘문, 성남(城南), 경기 등 4개 팀이지만, 여중부 출전팀은 10개 팀에 이르고 같은 해 10월 2일 송구협회와 한성일보(漢城日報) 공동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 1회 전국남녀학생송구 선수권대회 남중부 참가팀이 13개 팀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대회 남중부 참가팀도 10개 팀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복 후 최초로 열린 남녀중학송구대회서는 양정중과 숙명여중이 남녀 중학부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 이어 6월에는 한성일보 주최로 제 1회 소년국민송구대회가 두번째 송구대회로 열렸는데 이 대회 역시 출전팀 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서울중학교와 휘문중학교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남녀부 각각 10개교 이상의 많은 팀이 참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남자부는 창신(昌信), 여자부서는 삼광(三光)국민학교가 우승했다.

송구협회와 한성일보가 창설하여 10월 2일 서울운동장서 개최한 전국남녀학생송구 선수권대회에는 고려대학과 동국(東國)대학이 참가하여 대학부경기가 처음으로 열렸다. 참가팀은 남중부 서울, 대동상(大東商), 경동(京東), 성남, 배재, 보성, 휘문, 경기, 양정, 경기공(京畿工), 경복(景福), 한양공(漢陽工), 선린상(善隣商) 등 13개 팀, 여중부 경기, 이화(梨花)A·B, 숙명, 풍문A·B, 무학, 수도 등 10개 팀, 대학부 고려대, 동국대 등 2개 팀이었고 경기여중, 서울중, 고려대가 각부서 우승했다.

광복된 지 3개월만에 열린 자유해방기념 전국종합경기대회는 광복 전에 열렸던 전조선종합경기대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1946년부터는 전국체육대회라는 새 이름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1946년 10월 16일 서울운동장서 개막된 제 27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송구가 처음으로 대회종목에 포함되었다.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처음 실시된 제 27회 전국체육대회 송구부

의 기록은 각 부 준결승 이후만 남아 있어 각부 참가팀 수가 확인되지 않으나 그 당시의 전국체전 규정이 자유참가제였으므로 참가팀은 2주 전에 열린 제 1회 전국남녀학생송구 선수권대회 참가팀과 엇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중부 결승서는 휘문중과 서울중이 연장까지 벌이고서도 2-2로 비겨 공동 우승했고 여중부선 풍문여중, 대학부선 고려대가 패권을 잡았다.

1970년 12월 한국 중 고등학교 연맹 결성과 1971년 뮌헨 올림픽 예선 대회가 일본에서 열리게 됨으로 국가 대표팀이 구성되어 국가 대표팀의 첫 외국 원정 경기도 갖게 되었다

1971년 11월에 핸드볼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어 제 20회 뮌헨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전을 일본의 도쿄에서 한국, 일본, 이스라엘의 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는데 한국은 일본에게 2전 2패, 이스라엘과는 1승 1패를 하여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초로 국가 대표 팀이 구성되어 해외 원전 경기를 가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73년 1월 한국 초등학교 연맹 결성과 1976년 12월에 한국 대학 연맹이 결성되었다.

1975년 3월에 제 6회 세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아시아 B지역 예선전을 한국, 일본, 자유중국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경북 체육관에서 더블 리그로 실시하였는데,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 자유중국이 3위를 하였다.

1976년 3월에는 제 21회 몬트리올(Montreal)을 올림픽 아시아 지역 핸드볼 예선전이 자유중국 대북(Taipei)에서 한국, 일본 자유중국이 더블 리그로 실시하였는데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 자유중국이 3위를 하였다.

1977년 2월에 아시아 핸드볼 연맹이 창립되면서 제 1회 아시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회장국인 쿠웨이트에서 한국, 일본, 중공, 쿠웨이트를 비롯한 9개 회원국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는데, 한국은 일본에 이어 2위를 하였다.

1978년 제 7회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전이 서울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한국, 일본, 자유중국이 더블 리그로 실시하였는데, 처음으로 한국이 숙적 일본을 이겨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한국 핸드볼 발전의 새 이정표가 되었다. 이어 11월 체코슬로바키아의 본선에 참가한 한국은 예선전에서 동독,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과 싸워 3전 3패를 하여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있음을 실감케 했으나 정상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세계 대회의 참가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열린 모스크바 올림픽 예선전에서 한국 여자 대표 팀은 콩고, 미국을 격파하고 감격의 우승, 본선 티켓을 따냈다. 이 예선 대회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 한국을 비롯하여 북미의 미국, 아프리카의 콩고 등 3국이 출전 더블 리그로 패권을 다투었는데, 한국 여자 핸드볼 티임은 3월 18일 콩고의 브라자빌 혁명 기념 체육관에서 벌어진 모스크바 올림픽 최종 예선 2차전에서 홈 팀 콩고를 24 : 11로 격파, 2승을 기록함으로써 본선 진출을 확정시킨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16일 미국과의 첫 게임에서 속공과 철벽 수비로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고 24 : 20으로 신승, 서전을 장식한 바 있다.

3) 전성기(1980년대 이후)

(1) 경기 규칙

한 팀은 12명으로 편성되지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7명이다. 즉 포워드 3명, 하프백 1명, 풀백 2명, 골키퍼 1명과 5명의 교체선수(1명은 골키퍼)이다. 현재 올라운드 기술이 요망되므로 골키퍼를 제외한 6명을 일

괄해서 필드플레이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2003년 이후 현재의 핸드볼 경기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한핸드볼협회, 2003b).

· 경기에서 공을 가지고 3발자국까지는 뛰거나 걸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반칙이다.

· 한 손으로 연속해서 드리블하는 것은 가능하나, 바닥에 튕긴 공을 두 손으로 잡은 다음 다시 드리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볼을 3초 동안 잡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반칙이다.

· 무릎 아래에 공이 닿아도 안 되며, 발로 차서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골키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공을 잡기 위해 팔과 손을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상대편이 가진 볼을 건드려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때 주먹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골키퍼는 전신의 어느 부분으로도 방어할 수 있으나, 상대편을 붙잡거나 부딪히는 일은 반칙이다.

· 골키퍼는 골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제한 없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나 볼을 가진 채 골에어리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에어리어 밖에 있는 볼을 에어리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 골키퍼는 골에어리어 밖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으나, 그 경우는 필드플레이어와 같은 규칙을 적용된다.

· 공격선수들은 코트 위에 표시된 골에어리어 밖에서 슛을 하며, 골에어리어 안에서는 상대팀의 골키퍼만이 수비할 수 있으나, 필드플레이어가 볼을 던진 다음 선을 넘어 들어갔을 경우, 그 것이 상대편의 이익과 관계가 없을 때는 허용된다.

· 대개 팀 동료에게 패스하게 되는 프리 스로(free throw)는 가벼운 반칙을

범했을 때, 반칙을 한 지점이나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 밖에서 주어진다.

· 공격의 의사가 없으면 심판이 공격권을 수비팀으로 넘기는 패시브 룰(passive rule)의 도입으로 핸드볼 경기 운영은 공격위주로 흐르고 있다.

· 페널티 스로(penalty throw)는 심한 반칙을 한 경우에 골라인 밖의 패널티 지점에서 주어진다.

징계에 대한 경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거듭된 규칙위반과 비스포츠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경고를 내린다.

· 볼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잘못된 교대, 규칙위반이 여러번 반복될 때, 비스포츠적인 행위가 반복될 때는 2분간 퇴장 당한다.

· 거친 규격위반과 거친 비스포츠적인 행동, 2분간 퇴장이 3번일 때는 실격되며 폭력행위시 완전 퇴장 당한다.

핸드볼 경기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상대하는 두 팀은 센터라인으로 구분한 너비 20m, 길이 40m의 직사각형 경기장 한쪽을 자기 진영으로 한다.

· 한쪽 팀이 중앙에서 스로오프(throw off)를 알리는 심판원의 휘슬 소리와 동시에 경기가 개시된다.

· 패스나 드리블로 공을 몰고 가는 상대편 골에 던져 넣으면 1점을 얻게 되는데, 이때 수비수는 상대편의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

· 규정시간 내에 득점이 많은 쪽이 이기며, 시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에 들어간다.

·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7m 스로로 결정한다. 즉 각 팀의 5개씩 스로를 교대로 행하여 득점이 많은 팀을 승자로 한다.

· 경기 운영은 같은 권한을 가진 검은 유니폼을 입은 2명의 심판원에 의해

진행되며, 계시원과 득점기록원이 이들을 돕는다.

남·녀 16세 이상의 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30분이며 중간에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는다. 12~16세 청소년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25분, 8~12세 어린이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20분이며, 모두 중간에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는다. 또한 농구경기와 마찬가지로 전·후반 각각 5분의 작전타임을 가질 수 있다.

길이가 긴 쪽의 경계선은 사이드라인, 짧은 쪽 경계선에서 골포스트 사이에 있는 부분은 골라인, 골의 양쪽 부분은 외곽 골라인이라고 한다. 경기장 바깥 부분에 사이드라인을 따라 1m, 외곽 골라인 뒤편에 2m 이상의 안전지역을 확보해야 한다. 골문의 내부 높이는 2m, 너비는 3m이며,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삼면은 주위 배경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2가지 색상으로 칠한다. 사용하는 공은 단색의 가죽으로 싸인 고무로 둥글게 만든 것으로, 표면이 번쩍거리거나 미끄러워서는 안 된다. 2000년 제 27회 시드니(Sydney) 올림픽에서는 색깔이 들어 있는 공이 사용되었다. 남자 일반부 및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부 경기에 사용하는 공은 경기 시작 전에 측정하여 무게 435~475g, 둘레 58~60㎝이어야 하고, 여자일반부와 12~16세 남자 청소년부 및 14세 이상의 여자 청소년부 경기에 사용되는 공은 무게 325~400g, 둘레 54~56㎝이다.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상대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 및 디자인을 지닌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또한 골키퍼는 양 팀 선수 및 상대편 골키퍼와 구별되는 색상의 유니폼 뒷면에 1에서 20번까지의 등 번호를 부착하는데 등 번호는 최소한 글자높이 20㎝로, 상의 앞면에 부착하는 배 번호는 최소한 글자높이 10㎝로 달아야 한다.

선수들은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팔찌·시계 등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사용할 수 없다. 양 팀 주장은 유니폼 상의

와 대조되는 색상의 너비 4㎝짜리 띠를 한쪽 팔 상박에 둘러야 한다.

(2) 인물

1978년 대구서 열린 제 7회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 대회 아시아지역예선서 여자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일본을 꺾었다. 이때의 대표선수단은 단장 박응철, 감독 김영우, 코치 이수창, 트레이너 이금구, 선수는 이명숙, 김순숙, 양옥희, 김선희, 이상옥, 김명혜, 임창숙, 정순복, 김혜자(이상 조폐공사), 최성희, 박묘순, 이남자, 안미옥(이산 인천시청), 장천성(부산 한성초대), 장순복(충주공전)이었다.

여자대표팀을 이끌고 타도 일본의 숙원을 달성한 감독 김영우는 성균관대학서 선수생활을 했으며 대학졸업 후에는 성정여고서 교편을 잡아 핸드볼부를 육성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일선경기지도자 육성을 위해 마련한 코치아카데미 과정을 핸드볼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이수하였으며 백화양조여자 실업팀의 감독에 취임하여 여자핸드볼 육성에 힘을 기울인 지도자이다. 그는 협회경기이사 기술위원장을 맡아 경기발전에 전력하다가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 아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하여 한국은 이 대회에 골키퍼 정순복을 비롯해 이상옥, 김순숙, 이경희, 이명숙, 임창숙, 이인숙 등 베스트 세븐을 기용 초반 맹공세로 기선을 제압했으며, 공격, 수비, 테크닉에서 콩고를 압도, 한국 구기 종목으로 유일하게 모스크바 올림픽 티켓을 따는 감격을 알았다. 그러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는 자유 진영의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코트로 인해 대망의 올림픽 광장에 나서지 못하는 아쉬움을 간직한 채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겨냥해 오늘도 한국 여자 핸드

볼은 정진을 거듭하고 있다.

핸드볼 선수 중 유럽진출 1호는 강재원으로서 1989년 10월 스위스 취리히 소재 그라스호퍼 클럽에 연봉 6만달러를 받고 유럽무대에 진출했다. 소속팀을 3회나 정상에 올려놓았고 준우승도 10여 차례 이상 시켰다. 1989~1990, 1990~1991시즌은 그라스호퍼에서 뛰었다. 그러나 1992년 9월 스위스 빈터투르 클럽으로 이적해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1995년에는 남자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았으며 현재는 스포츠 마케팅 및 에이전시 회사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후배들의 해외 진출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빈터투르 클럽에서는 플레잉 코치를 하고 있다. 1990~1991 시즌엔 232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고 1992년에는 스위스 핸드볼연맹이 선정하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강재원은 세계적인 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1985년 이탈리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66골, 1989년 스위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67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고 1992년 10월 유럽컵 덴마크전에서는 한 게임 최다골인 16골 기록도 세웠다. 1985년부터 국제대회 357게임 출장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세계핸드볼연맹이 선정하는 '윈드 베스트7' 은 1988년부터 3연속, '월드 베스트13' 은 1988년부터 7연속 뽑혔다. 그가 유럽무대에 진출하게 된 것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 가능했다. 1986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득점왕에 오를 당시 그의 화려한 플레이에 반한 독일 도르마겐과 그라스호퍼 클럽은 집요하게 스카우트 공세를 폈다. 1989년 7월 병역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장인인 김종하 전 핸드볼협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그라스호퍼에 입단했다. 진출초기에는 언어 장벽과 낯선 관습 등으로 심적 갈등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이내 세계핸드볼연맹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도 여러 차례했다. 부천공고 2학년부터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까지 10년간 대표선수 생활을

했다. 1984년 LA올림픽 때 득점 랭킹 3위로 세계적 골게터의 명성을 얻었고, 1988서울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획득, 한국남자 핸드볼의 위상을 세계정상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서울올림픽에서 최다득점(47점)을 올리면서 대회 최우수선수의 영예도 누렸다. 강재원은 이석형(아미시티), 조치효(빈터투어), 문병욱(HC아르본) 등 남자 5명과 여자 김정미(LC브룰갈렌)까지 유럽 진출을 도왔다.

한국 핸드볼사상 최장신(204cm)이었던 윤경신은 1996년 2월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했다.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9게임을 뛰는 동안 98골을 몰아넣아 스포트라이틀르 받았고 이것이 계기가 돼 분데스리가 굼머스바흐 클럽에 스카우트 됐다. 계약조건은 연봉 25만 달러, 기간은 3년. 첫해인1996~1997시즌에 208골로 득점왕에 올랐고 이듬해도 228골로 연속 득점왕이 됐다. 장신이 즐비한 독일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신체적 조건에 뛰어난 순발력으로 정상급 선수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박정림, 백인숙(이상 오자키전기), 백영란(홋쿄쿠은행), 이영미(자스코) 등이 일본으로 뒤를 이었다. 1993년 10월, 90년대 중반 한국 여자핸드볼을 이끌었던 임오경(이즈미)이 연봉 6백만엔의 스카우트 조건으로 일본 이즈미팀에 선수 및 코치로 입단했으며 이때 오성옥은 선수로 같이 입단하였으며, 1994년에는 일본히로시마 메이플레츠팀의 선수겸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오성옥은 같은 팀에서 코치겸 선수로 활약하면서 2004년 동아시아 남녀클럽핸드볼대회에 임오경과 오성옥은 함께 선수자격으로 참가하였다. 1994~1995시즌엔 6게임에서 무려 50골을 터뜨려 팀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에 진출시켰다. 166cm 61kg의 그리 크지 않는 체격이지만 서전트 점프 50cm 이상인 파워와 순발력이 일본에서도 통한 것이다. 임오경은 1996년 말 한국이 배출한 걸출한 스타 홍정호의 일본 진출을 적극 도운 끝에 같은 팀에서 뛰었다. 홍정호는

1998년 6월 노르웨이 베케라게츠 스포츠클럽으로 이적했다. 임오경은 1998년 독일 명문 클럽인 BVB09 도르트문트에 입단했다. 토르트문트는 1997년 독일컵에서 우승하고 같은 해 유러피언컵 준우승을 차지, 국내뿐 아니라 유럽내에서도 강팀으로 꼽힌다. 그러나 김은미는 강재원의 권유로 이내 스위스 생갈렌팀으로 옮겨 활약하였다가 현재 일본 히로시마 메이플레스 팀에서 뛰고 있다.

해외진출 선수는 다음과 같다.

표 4. 해외진출 선수단

이름	진출국가	진출팀	현소속팀	진출기간	연봉	비고	성별
강재원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그라스호프 파디윈터투 파디윈터투	그라스호프	89-92 92-99 2000	20만프랑	감독겸선수	남
조치효	스위스	파디윈터투	상무	94			남
윤경신	독일	굼바수바흐	경희대	95	25만달러	특별수당	남
이석형	아이슬랜드 스위스 스위스	레이캬비크FH 테파 수어 ZMG아마시티아	두산경월	96-98 98 98	3만달러 7만달러	아파트,자가용 아파트,자가용	남
문병욱	스위스	HC아본	두산경월	98			남
조범연	일본 스위스	나카무라운수 그라스호프	경희대	96			남 남
박성립	일본	대동특수강	상무	96			남
백원철	일본	대동특수강	한체대	99			남
김성헌	스페인	BM그래놀러스	상무	99	1억3천만원	주택,보험,총5억5천	남
임진석	일본	대동특수강	제주대				남
박영대	일본	나카무라운수	경희대				남
오용기	일본	나카무라운수	원광대				남
임오경	일본	이즈미	한체대	94		감독겸선수	여
김현옥	일본	대기전기	상명대	96-97			여
홍정홍	일본 노르웨이	이즈미 백켈라케츠클럽	한체대	96 98	1억원 2억원	주택,자가용	여
유미정	일본	다테야마알루미늄	광주시청	97-99			여
김지연	일본	오사카덴키	상명대	97			여
이봉수	일본	다테야마알루미늄	종근당	97-99			여
구애경	일본	히다치	동성제약	97			여
오성옥	일본	이즈미	종근당	98	1천만엔	성적보너스3백만엔	여
이희정	일본	다테야마알루미늄	금강고려	98-99			여
한명희	일본	히다치	한국가스공사	98			여
유진숙	일본 노르웨이	다테야마알루미늄 백켈라케츠클럽	종근당	98 98			여 여
김정미	스위스	갈렌	금강고려	98			여
김은미	독일	보르시아도르트문트	한체대	99			여
백인숙	일본	히다치	상명대				여

출처 : http://handball.sports. or.kr/handball/subIndex.jsp

그리고 해방이후부터 역대 한국핸드볼 협회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5. 역대 핸드볼 협회장

대순	성명	재임 기간	당시 직업 및 직위
1대	이병학	1945.10 ~ 1951.	
2대	이선근	1952. ~ 1959.	
3대	한병철	1960. ~ 1963.	
4대	김의형	1962. ~ 1968.	
5대	오원선	1969. ~ 1970.	
6대	김택하	1971. ~ 1971.	
7대	하용도	1972. ~ 1972.	
8대	박창동	1973. ~ 1974.	
9대	이춘광	1976. ~ 1978.	
10대	오정익	1979. ~ 1981.	
11대	김종하	1981. ~ 1984.	
12대	김종하	1985. ~ 1988.	대한체육회장
13대	김종하	1989. ~ 1991.	(협)고합뉴욕생명 회장
14대	한청수	1991. ~ 1992.	(현)협회 명예회장
15대	김귀년	1993. ~ 1995.	(전)무등건설 사장
16대	신박제	1995.2. ~ 1996.12.	전국교원단체협의회 회장
17대	정상영	1997.2. ~ 1998.2.	(주)필립스전자 대표이사 사장
18대	설원봉	1998.5. ~ 2000.2	금강,고려그룹회장
19대	박광태	2000.6 ~2002.4	국회의원
20대	임한석	2002. 5~2004	국회의원
21대	김한길	2005.1~현재	국회의원

출처 : http://handball.sports. or.kr/handball/subIndex.jsp

(3) 경기 대회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아시아 B조 예선 경기가 81년 9월 16일부터 한국과 중공과의 대전을 시발로 3일간 도쿄에서 벌어졌는데 첫날 한국

핸드볼이 중공을 꺾었다. 한국은 9월 16일 오후 도쿄 고마지와 체육관에서 벌어진 제 10회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아시아 B조 예선 1차전 중공과의 경기에서 신장과 체력의 열세를 정교한 기량으로 극복 26 : 23으로 중공을 이겼다. 한국 남자 핸드볼이 중공과 격돌하기는 두 번째로 77년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20 : 19로 이겨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날 개인기가 뛰어난 강태구(8점), 최태섭(7점), 임영철(5점)등의 수훈으로 거친 경기를 벌인 중공을 쉽게 따돌리고 후반전에서도 임영철의 멋진 다이빙 슛팅과 강태구의 사이드 슛, 골키퍼 임규하의 선방에 힘 입어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음날 일본과의 경기에서 투지를 앞세운 한국은 슛의 난조로 노련한 일본에 29 : 24로 패함으로써 본선 진출의 꿈이 좌절되었다.

1983년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남자부가 우승을 하였다. 1984년 LA 올림픽대회에 남녀부가 참가하여 여자부 은메달 획득과 1985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개최, 준우승, 1986년 아시안 게임 우승, 1988년 제24회 올림픽 대회 남자 은메달, 여자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990년 제 10회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핸드볼 사상 처음으로 남북대결을 벌였으며 1990년 서울에서 열린 제 10회 세계여자선수권 대회에서 대표팀은 11위로 추락하였다(김수인, 1990). 1991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경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선에 남녀부가 우승함으로 자력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남녀부가 출전하여 여자부는 한국 구기종목 사상최초로 2연패를 이룩하였다. 1994년 제 12회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2대회 연속 남녀핸드볼 동반우승을 하였다. 1995년 제 12회 세계여자핸드볼대회서 우승하므로써 올림픽과 세계대회서 전승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어 1996년 제 26회 애틀랜타(Atlanta) 올

림픽경기대회에서는 은메달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 제 27회 시드니 올림픽 경기대회에서는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남자 선수의 경우 신장차이로 인하여 8위에 그쳤으며, 여자는 전후반 30분 동안 무승부를 기록하였으며 연장전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하여, 패널티 드로우 결과 아쉬운 2위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상하였다(조선일보, 2004. 10. 16). 현재 국내 남녀 실업팀의 현황은 남자의 경우 한국체육대학, 코로사, 충청하나은행, 두산주류의 4개팀이 있으며, 여자의 경우 효명건설, 대구시청, 부산시설관리공단, 삼척시장, 창원경륜공단의 5개팀이 있다(http://handball.sports.or.kr/handball/subIndex.jsp).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핸드볼의 탄생과 한국에의 도입 및 발전에 대한 체육사적 접근을 통하여 일제시대와 해방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규칙의 변천, 인물, 경기대회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핸드볼의 기원

핸드볼은 상당히 오래전 부터 행하여진 경기라고 알려져 있다. 연구 전문가들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인간은 발보다 손을 가지고 보다 다양한 기술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핸드볼은 레스링, 복싱 그리고 제반경기와 같이 고대의 전통적인 올림픽종목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서 Homer 의 서사시 Odyssey에 핸드볼선수를 찬양한 구절을 볼 수 있다. 아테네근처 Diplyon에서는 "손을 가지고 하는 멋진 볼 경기, 공을 가지고 춤을 추는 듯한 행동" 이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묘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시인인 Walther Von der Vogelweide (1170~1230) 는 "C-atch-Ball Game "을 극찬하였으며 또한 13세기 초 Runkelstein 성의 Frescoes는 기사들의 경기에서 "핸드볼 경기"와 유사한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역사상의 문화적인 변혁기에 현재 사용하는 공과 유사한 공이나 도구를 손을 사용한 경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는 핸드볼과는 어떠한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

핸드볼은 매우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다. 또한 핸드볼은 독일에서 발생되

었던 것은 아니다. 1954년 덴마크는 그들의 핸드볼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교사인 Holger Nielsen은 일찍이 1904년에 그의 "Haandbold" 경기에 관해 소개하였으며 1906년에는 개정된 규칙을 출판했다. 1911년에 수천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Haandbold" 시합을 하였다는 것과 한 팀에는 7명이 뛰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진정한 오늘날의 핸드볼은 아니었다.

1917년에는 여자를 가르치는 스포츠 교사로서 베를린출신의 Max Herser는 여성을 위한 팀경기를 고안했다. 그 당시 소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성격에 맞는 축구를 상당히 즐기고 있었으며, Heiser는 흔히 무시당하는 소녀들이 그들을 위한 자신들의 게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Zeit-eist "(시대의 정신)에 의해 지배되는 경기를 고안했다.

핸드볼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빠른 것 중의 하나이다. 핸드볼은 신체적인 힘, 근력, 스피드, 기술의 우아함, 협동의 조화, 의지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핸드볼 경기의 전신에 대한 필요는 달리기 위한 발, 다리, 방어를 위한 몸통,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던지기 위한 팔과 손, 생각하는 머리가 있으며, 또 핸드볼 경기는 인간의 모든 기관에 조화있는 트레이닝 기회를 준다. 사실 핸드볼처럼 신체의 모든 내장기관과 심장, 허파를 발달하게 해주는 스포츠도 드물다. 핸드볼 경기의 기술은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과 트레이너에게 많은 문제를 접하게 해 준다. 핸드볼 경기는 경기를 통하여 경기의 본질인 끈질긴 투쟁을 경기자와 팀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에는 예리한 정확성, 완전한 균형, 근신경계의 절대적인 숙달이 필요하다. 핸드볼 경기의 기본철학은 상대편 선수를 해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각 팀에게 주는데 있다. 그래서 어드밴테이지 규칙은 핸드볼 경기의

필수요건이다.

2) 핸드볼의 변천과정

핸드볼은 1898년경 덴마크에서 시작되었으며, 1918년 프레드릭 구누드센에 의하여 실내 핸드볼 규칙이 발표됨으로써 7인제 핸드볼 발전의 계기를 이루었으며, 1915년경에는 도이칠란트에서 도아발(Torball)이란 이름으로 부녀자를 위한 체육활동으로 시작되어 1919년 칼 쉘렌츠에 의한 11인제 규칙이 체계화되어 실외 경기로 발전되었다. 1928년에는 I.A.H.F가 결성되는 동시에 국제 경기도 시작하게 되었으며, 1936년 베를린 올림픽(olympic)에는 처음으로 정식 경기 종목으로 등장(登場)하는 등 급속도로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38년 2월에는 7인제 남자, 7월에는 11인제 남자, 제 1회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어 양종목(兩種目)다 도이칠란트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 후 곧 제2차 대전으로 유럽에서는 일시 중단(中斷)상태에 이르던 중 비교적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은 유럽 제국 간에서는 실내(室內)에서 할 수 있는 적당한 경기로서 착실(着實)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불행한 제2차 대전이 끝이 나는 동시에, 1946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8개국이 모여서 I.H.F(국제 핸드볼 연맹)가 창설되어 전후(戰後)의 핸드볼계에 발전의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1948년에는 프랑스에서 제2회 11인제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어 제2차 대전의 영향(影響)을 적게 받은 후 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가 1,2위를 차지하였고, 1954년에는 7인제 제2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스웨덴이 우승을 하는 등 2차 대전 후 한 때는 북유럽권이 우위를 차지했다. 1950년대 이후로는 11인제 핸드볼은 비교적 플레이가 완만하고 드릴(thrill)이 적은 관계로 플레이어나 관객의 흥미도가 적어

쇠퇴(衰退)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북유럽의 7인제 핸드볼이 전성일로(全盛一路)가 되는가 하면, 11인제는 도이칠란트, 스위스, 오스트리아 정도의 나라가 할 뿐으로 현재로서는 세계의 핸드볼의 방향은 7인제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3) 한국 핸드볼의 도입과 발전

(1) 해방이전 한국 핸드볼

해방 이전의 한국 핸드볼은 1936년부터 고등 보통 학교에서 그 당시의 체조시간(體操時間)의 교재(敎材)로서, 또는 운동회 프로그램의 한 종목으로서 그 당시 일본 유학생 출신인 한병철 등 고등 보통 학교 교사들이 11인제 핸드볼을 시작한 것이 효시(嚆矢)라 할 수 있으며, 1939년에는 이병학 교수가 당시 보성전문학교(輔成專門學校)교정에서 현재 7인제(당시에는 7인제는 사용하지 않을때임)핸드볼을 소개한 바 있었으며 1942년경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1인제 경기 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가지게 되었다.

(2) 해방이후 한국 핸드볼

가) 성장기(1945~1960년)

경기장의 길이는 30~50m, 폭 15~25m의 직사각형이며, 경기시간은 1947년 성인은 25분 하프, 소년은 20분 하프로 연장은 전후반 10분이었다. 여자의 경우 15분 하프로 연장은 전후반 7분으로서 현재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행해졌다. 1958년에는 성인남자가 30분 하프, 고등학생의 경우 25

분 하프, 여자와 소년이 20분 하프이었으며 연장도 전후반 5분으로 개정되었다. 선수의 경우 1947년에는 1팀이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송구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이병학은 일본체전을 졸업하고 돌아와 한반도에 송구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광복 전에는 일본송구협회 조선지부와 송구구락부 등을 조직하여 송구보급에 진력한 공로자다. 일제하 송구의 도입시기부터 이병학과 손을 잡고 일해온 조영하는 광복 후 송구협회 창립과 체육회 재건에 이병학과 함께 참여하여 송구협회이사장, 체육회이사, 상무이사, 사무국보건체육부장 등을 맡으면서 이병학과 동지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1946년 5월 29일 협회의 처녀 사업으로 제1회 남녀 학생 선수권 대회 등을 개최, 1946년에 이르러서야 각급 학교의 송구대회가 처음 열렸다.

나) 발전기(1960년대~1970년대)

1960년까지 11인제만 실시되어 오다가 61년과 62년에는 7인제와 11인제(여자는 7인제)를 병행,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3년에 들어서 국제적인 상승 기류에 의하여 11인제를 폐지하고 7인제 경기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 6월 23일 벨기에에서 개최된 IHF 총회에 문현주, 한병철 양씨가 참석해서 회원국으로 가맹하여 국제 진출의 길이 트였으며, 경희핸드볼 육성의 공로자는 조영식이고 성균관대 핸드볼 육성의 공로자는 당시 성균관대 교수로 재임하여 핸드볼협회 초창기 오랫동안 행정실무책임을 맡았던 한병철이다. 김용식(金容植)은 한인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축구대표로 선발되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였으며, 1958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했고 1958년부터는 실무부회장, 4·19 학생의거 후인 1960년부터 2년간은 회장, 그 이후는 다시 실무부회장으로 1960년대말까지 빈곤한 시절 송구협회를 이끈 한병

철을 도와 협회운영에 관여한 주역들은 홍순태, 문현주, 최동순(崔東淳), 최인근(崔仁根) 등 일본체전출신 체육교사들이었다.

1946년 5월 29일 제 1회 남녀 중학 송구대회가 열렸으며, 1946년 6월 제 1회 국민 송구대회, 1946년 10월 2일 전국 남녀 학생 송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946년 제 27회 전국체육대회에 송구가 대회종목으로 포함되었다.

다) 전성기(1980년대 이후)

한 팀은 12명으로 편성되지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7명이다. 즉 포워드 3명, 하프백 1명, 풀백 2명, 골키퍼 1명과 5명의 교체선수(1명은 골키퍼)이다. 현재 올라운드 기술이 요망되므로 골키퍼를 제외한 6명을 일괄해서 필드플레이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핸드볼 선수 중 유럽진출 1호는 강재원은 이석형(아미시티),조치효(빈터투어),문병욱(HC아르본) 등 남자 5명과 여자 김정미(LC브룰갈렌)까지 유럽 진출을 도왔다. 윤경신의 뒤를 이어 박정림, 백인숙(이상 오자키전기), 백영란(홋쿄쿠은행), 이영미(자스코) 등이 일본으로 진출하였으며, 임오경은 1996년 말 홍정호의 일본 진출을 적극 도운 끝에 같은 팀에서 뛰었다.

1983년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남자부가 우승을 하였다. 1984년 LA 올림픽대회에 남녀부가 참가하여 여자부 은메달 획득과 1985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개최, 준우승, 1986년 아시안 게임 우승, 1988년 제24회 올림픽 대회 남자 은메달, 여자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990년 제 10회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핸드볼 사상 처음으로 남북대결을 벌였으며 1990년 서울에서 열린 제 10회 세계여자선수권 대회에서 대표팀은 11위로 추락하였다. 1991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경 바르셀로나 올

림픽 예선에 남녀부가 우승함으로 자력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남녀부가 출전하여 여자부는 한국 구기종목 사상최초로 2연패를 이룩하였다. 1994년 제 12회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2대회 연속 남녀핸드볼 동반우승을 하였다. 1995년 제 12회 세계여자핸드볼대회서 우승하므로써 올림픽과 세계대회서 전승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어 1996년 제 26회 애틀랜타(Atlanta) 올림픽경기대회에서는 은메달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 제 27회 시드니 올림픽경기대회에서는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남자선수의 경우 신장차이로 인하여 8위에 그쳤으며, 여자는 전후반 30분 동안 무승부를 기록하였으며 연장전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하여, 패널티 드로우 결과 아쉬운 2위를 기록하였다.

2. 제언

첫째, 핸드볼 경기가 서양 선교사와 일본 유학생에 의해 한국에 도입된 과정에 대해서는 차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둘째, 경기규칙의 변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영석(1983). 핸드볼. 동양문화사, 5~6.

김경용(1986). 핸드볼. 신체육 스포츠 총서, 27~88.

김동진(1982). 핸드볼. 동양문화사, 11~13.

김동진(1989). 핸드볼. 스포츠 시리즈 7. 11~15.

김수인(1990). 자만과 무방비로 자중자란 불러. 스포츠서울, 62~65.

대한체육회(1984). 과학적인 핸드볼. 대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3~11.

대한핸드볼협회(1995). 인기의 명암 두드러지게 나타나. 월간지 3월호, 20~21.

대한핸드볼협회(2003a). 국내 역대 경기별 남녀 전적. 대한핸드볼협회.

대한핸드볼협회(2003b). 핸드볼 경기규칙. 대한핸드볼협회.

문교부(1973). 체육교육총서. 문교부, 11~19.

박순철(1986). 핸드볼. 형설출판사, 7~13.

박응철(1970). 간추린 세계 핸드볼사. 대한체육회, 65~68.

박응철(1971). 세계 남자 7인제 선수권대회 연혁과 기록. 대한체육회, 61~65.

박형철 · 강인섭 · 안의수 · 손태열(1986). 핸드볼. 동화문화사.

오도광(1999). 단체구기의 MVP. 이야기한국체육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용기(2002). 한국대표팀과 세계 상위 랭커의 핸드볼 경기분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중호(1968). 핸드볼 경기 규제상의 문제점 처리에 관한 고찰. 광주교육대학논문집 제 3집, 221~240.

이영태(1986). 올림픽 경기종목의 변천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 논문집 제 4집, 103~113.

조선일보(2004). 2004년 3월 22일자.

조선일보(2004). 2004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2004). 2004년 10월 16일자.

조춘제(1983). SPORTS HANDBOOK. 한국방송사업단, 232~241.

최종석(1971). 핸드볼, 형설출판사, 11~15.

최종석(1973). 핸드볼 지도서. 형설출판사, 9~12.

학생스포츠 대전집(1985). 3종류의 핸드볼. 대호출판사, 131~140.

한국스포츠정보(2001). 핸드볼. 스포츠 서울 21, 434~805.

홍성균(1980). 핸드볼의 이론과 실제. 경지사, 9~17.

황철문(1992). 핸드볼. 금화출판사, 3~5.

다카하시 다케오(1982). 핸드볼의 역사, 9~11.

Charlie O'Connell(1964). *Handball illustrated.*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mpany, 3~6.

http://handball.sports. or.kr/handball/subIndex.jsp

http://sportsmuseum.co.kr(2004).

Mand, C.L.(1968). The history of *Handball. Handball: fundamentals*, 73~77.

Nelson, R. C.(1971). *Handball* its history and place in american life today. *Handball*, 33~36.

Park, S. J.(1973). *Team Handball: An introductory man*, 1~5.

Phillips, B. E.(1940). *Fundmental Habdball.* A.S. Barnes & Company Inc., 1~14.

Rowland, B. J.(1970).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Handball. Handball: a complete guide*, 25~30.

Shaw, J. H.(1971). *Handball has a long history*, 76~79.

Tyson, P.(1971). History. *Handball*, 1~5.

Yessis, M.(1977). *Handball.* W.C. Brown Co., 1~7.